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5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하)

정답 및 해설

PART 1 | 현대 소설

01 무정

본문 010~01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형식과 선형의 대화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2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5 서술자는 일관되게 3인칭 전지적 서술자로 유지되고 있다.
- 07 ‘만일 선형이가~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9 영탄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 10 형식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며 그의 감정 변화를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 11 영어 과외를 마친 후 질문을 던진 것일 뿐 이를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3 형식은 선형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약혼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15 선형의 대답을 듣고 혼란스러움을 느낀 형식은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 16 선형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형식과 약혼한 것이다.
- 17 선형은 형식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 18 형식과 대화를 한 후 선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20 선형이 아닌 형식의 생각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③ 5 ⑤ 6 마찬가지로 7 제목 ‘무정’은 근대 여명의 의 어둡게 보이는 민족의 현실을 상징한다.

- 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형식과 선형의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형식이 선형의 감정을 의심하며 불안해하거나 선형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 등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특정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③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내면과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지적인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모든 인물의 심리와 갈등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갈등 상황을 서술하고 있을 뿐, 작중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고 있지 않다.

- 2 형식은 선형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 나간다. 그는 “한마디로 대답해 줘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며, 선형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고 있으며 선형이 애매한 대답을 하자 집요하게 되묻고 있으므로, 형식이 선형에게 사랑 유무를 묻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선형은 형식의 질문을 받고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혼란스러워한다. ③ 선형은 형식의 질문이 청천벽력 같았지만,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아내는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혼인이 개인의 감정과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형식은 사랑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전통적 여성관에 따라 아내가 되면 당연히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선형의 대답에 실망감을 느낀다. ⑤ 형식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형을 보며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병국 아내를 떠올리며 불쾌감을 느낀다.

- 3 선형의 “예”는 진정한 감정의 확신이라기보다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온 반응으로, 선형이 형식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거나 근대적 연애편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형식은 연애와 결혼이 개인의 감정과 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선형은 이미 약혼한 상태이므로 사랑은 결혼 이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봉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② 결혼을 감정의 선택으로 보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형식과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선형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 ③ 선형은 형식의 질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사랑 없는 결혼이 무의미하다는 근대적 연애편을 가진 형식은 선형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4 형식의 반복적인 질문에 선형은 즉각 답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물으며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선형이 아니라 형식이며, 형식은 선형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② 선형은 형식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선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형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⑤ 선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형식에게 사랑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 5 형식이 선형의 손을 진 것은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라, 선형의 감정에 대한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절박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식은 선형의 대답이 ‘아니요’로 바뀔 것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있으므로 형식의 행동은 사랑의 감정보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갈망과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형식이 약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 없는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으로 작품의 핵심 갈등이 드러난다. ② 형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선형의 처지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당시의 전통적 결혼관을 반영한다. ③ 형식의 직접적인 질문은 선형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④ 선형의 입술이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선형을 형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로 그리며 형식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 09 주인공의 심리를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어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는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11 ‘나’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사색하는 생활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인다.
- 13 ‘나’와 아내는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며 ‘나’가 아내와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 15 ‘나’가 아내와의 관계를 떠올리는 것은 금붕어와 회택의 거리를 본 이후의 일이다.
- 18 정오 사이렌을 들으며 ‘나’는 현란한 정오의 풍경을 인식하지만 이를 어지러운 세태로 보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정오 사이렌을 듣고 의지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⑤ 2 ② 3 ④ 4 ② 5 ④ 6 ③ 7 정오 사이렌 8 ㉠에는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 1 ‘나’는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준 사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모호한 서술로 일관하여 불안정한 내면을 드러낸다.
 ○답 해설 ① ‘나’의 내면 심리와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며, 사건의 선후 관계나 갈등의 원인 탐색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며 ‘나’의 의식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나’의 주관을 바탕으로 한 의식을 보여 주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방’의 안과 바깥 공간은 상이한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계층 간의 불평등과 관련이 없다.
- 2 ‘나’가 빈대를 싫어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빈대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답 해설 ①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관찰하고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묘사한다. ③ ‘나’는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이 성가시며 인간 사회가 스스럼없다고 서술한다. ④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 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출에~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 [B]는 금붕어를 관찰한 뒤에 회택의 거리를 보며 그곳에서의 삶을 금붕어 지느러미에 비유하지만, 이는 대상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것이며 사건의 개연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 작품은 사건 간의 논리적 인과나 개연성보다는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답 해설 ① [A]는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나는 속이 무명 형검이나 메밀껍질로 땀땀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과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② [A]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나’가 하는 행동을 나열하여 혼자만의 행위에 침잠하는 인물의 삶을 보여 준다. ③ [A]는 ‘내 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나’의 생활을 서술하여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보여 준다. ⑤ [B]는 회택의 거리에 있는 현대인들의 피곤한 삶을 금붕어 지느러미에 비유하여 ‘나’가 받은 주관적인 인상과 심리를 서술한다.

- 4 ‘나’는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성찰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궁리하지는 않는다.

○답 해설 ① 아내가 외출에서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 아내와 의논해야 하며 반드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성가시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준 것을 오히려 생각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내면 심리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아내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으며 검은 색상의 옷 몇 벌이 전부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5 ‘나’는 미쓰코시 건물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현대인들의 피곤한 삶을 생각하고 자신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향으로의 도피와는 관련이 없다.

○답 해설 ① ‘내 방’에서 ‘나’는 혼자만의 행위에 빠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며 인간 사회가 스스럼없다고 생각한다. ② 아내의 귀가를 의식해서 ‘내 방’으로 돌아가는 행동이나, 적극적인 일을 궁리할 경우 아내의 반응을 신경 쓰는 태도로 보아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 ③ ‘미쓰코시 옥상’은 ‘나’가 외출하는 동안 거치는 외부의 공간이며, 그곳에서 ‘나’는 ‘회택의 거리’를 보며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한다. 이는 닫혀 있던 ‘나’의 내면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며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⑤ ‘현란을 극한 정오’의 풍경을 보며 ‘나’는 과거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을 생각하며 한 번 더 날기를 소망한다. 날개가 다시 돋기를 바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 6 ㉠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나’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목적의식이 없던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리 삶의 문제를 성찰하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답 해설 ① ‘나’는 아내에게 종속되어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무기력한 일상에 순응한다. ② ‘나’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지만 특별히 언급할 만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④ 이 글은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먹인 것과 관련한 서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아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 것을 표현한 구절로 볼 수 있다. ⑤ 현재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희망과 야심을 떠올리는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03 태평천하

본문 025~03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02 경어체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서술자가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04 인물이 대화를 나누기는 하지만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 05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06 전보의 내용을 읊고는 있으나, 종학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일 뿐, 그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09 인력거꾼은 윤 직원 영감의 말을 듣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있다.
- 12 윤 직원 영감은 불한당패, 화적패보다 사회주의에 대해 더 분해하며 무서움을 느낀다.
- 13 믿었던 종학에게 크게 분노를 느끼고 실망한다.
- 14 윤 직원 영감이 무서웠던 것은 집안의 몰락이지 손자 종학의 신상이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④ 2 ④ 3 ② 4 전보 5 ① 6 ⑤ 7 인물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러한 희화화는 인물을 풍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8 태평천하 9 • 공통 점 둘 다 자손 때문에 망하게 됨. • 진시황이 행복하다고 표현한 이유: 윤 직원 영감과 달리 진시황은 자손이 집안을 몰락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1 ‘지체를 바꾸어 ~’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경망스러운 윤 직원 영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진시황의 고사를 활용했으나 사건 해결의 방향을 찾는 것은 아니다. ②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2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윤 직원 영감을 희화화함으로써 그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는 표현을 통해 윤 직원 영감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인력거꾼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만, 윤 직원 영감이 위엄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인력거꾼의 소심함을 보여 주는 장면이지만, 인력거꾼은 허위적인 인물이 아니다. ③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는 것은 윤 직원 영감이다. ⑤ 당시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 직원 영감이다. 윤 주사의 생각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3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의 마음대로 해 달라는 처음의 말을 듣고 샅을 안 쥐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인력거값을 요구하는 나중의 말에 화가 난 것이지, 과한 값을 요구해서 화가 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인력거꾼은 “그냥 가쇼”라는 윤 직원 영감의 말에 어떤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③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윤 주사를 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보인했어요”라는 윤 주사의 이야기를 듣고 전보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다. ⑤ 종학이 사회주의를 한다는 사실이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 5 [A]는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B]는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이라는 구절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두 모습 모두 그릇된 가치관을 지니고 살던 윤 직원 영감을 폭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자적 효과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와 [B] 모두 현재 종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③ [A]에는 윤 직원 영감이 전보를 듣고 놀라는 발화만 나와 있을 뿐 종학을 비판하는 발화가 언급된 것은 아니다. ④ [A]에서는 사회주의를 하는 종학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 것은 맞지만, [B]에서는 갈등 해소의 암시를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는 전보를 받고 놀라는 윤 직원 영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B]에서는 윤 직원 영감이 종학을 비판하는 것이지, 자신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 6 이 글에서도 윤 직원 영감의 발화를 통해 종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입니다, ~지요, ~것다’ 등 판소리의 창자가 사용하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등에서, <보기>에서는 ‘똥 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 나오듯’ 등에서 과장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믿었던 종학이 사회주의로 접하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기>에서는 기대한 황금이 아니라 똥 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데서 반전을 찾아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꿈’, ‘똥’ 등에는 윤 직원 영감의 놀라고 분노하는 심리가 담겨 있으나, <보기>의 ‘물큰물큰’과 ‘슬근슬근’은 장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음성 상징어일 뿐,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4 사수

본문 033~04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B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경희를 찾아가지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04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
- 08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심리를 서술하며, 여러 인물의 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 12 ‘나’는 B가 자신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이유를 체념으로 인해 ‘나’를 나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 13 B의 이상적 징조와 발작적인 행동은 구속 보도를 보고 경희를 찾아갔을 때, 경희에게서 듣고 알게 된 내용이다.
- 14 ‘나’가 자신이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임을 알게 되는 것은 경희를 찾아간 것보다 뒤에 일어나는 일이다.
- 19 ‘나’는 B가 자신을 의식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짐작할 뿐, B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 20 병원에서 깨어난 ‘나’는 간호사를 경희로 착각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② 2 ④ 3 ④ 4 ③ 5 ④ 6 ④ 7 꾀바퀴의 상처 8 ‘나’와 B의 대결이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는 것은 그들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임을 암시하며 인간에게 내재한 운명적 대결 의식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 1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상황에 대한 내면 심리를 주관적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의 서술로 상황이 드러날 뿐, 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회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이지만,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④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나란히 전개되지 않는다. B의 사형 집행과 경희를 찾아간 일은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건이다. 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만, 주인공의 의식이 성숙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2 ‘나’는 B가 구속되었다는 신문, 7보도를 보고 경희를 찾아간다. ‘B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는 서술로 볼 때, 두 사람은 B를 구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B의 사형 집행의 사수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 낼 도리가 없다’며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② ‘나’는 B가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 또한 대결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 B가 ‘나’와 경희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짐작이나 서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는 자신이 B의 사형 집행의 사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경희를 떠올린다.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라는 서술로 미루어 볼 때, ‘나’는 과거 B의 가족과 마주치면서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신문 보도를 보고 경희의 행방을 알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형 집행의 순간에 B에 대한 미약한 승리감과 연민으로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뒤늦게나마 방아쇠를 당긴 것은 B와의 대결을 의식해서이며, B의 고통을 줄여 주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3 ㉔은 경쟁 상대이자 마음속에 새겨진 오랜 친구였던 B와의 복잡하면서도 끈끈한 관계를 생각하며, 모반 혐의로 구속된 B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의 혐의를 소상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모반 혐의의 내막을 아는 것이 B의 구명에 중요하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경희가 B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과 패배감이 B의 사형 집행 사수가 된 현재 상황에서 복수의 만족감을 느끼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사형 집행장에서 B와 마주한 상황을 대결로 인식하며, 그동안 B가 한 번도 자신에게 항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나’는 B가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 또한 대결의 관점에서 자신의 패배로 여기고 있다. ③ B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 원인이 그의 이적적인 모반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총을 쓰는 동시에 ‘나’가 고꾸라진 것은 대결이 강요된 상황에서 느끼는 치열한 내적 갈등과 심리적 충격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4 [A]에서 ‘나’가 경희의 사정을 듣고 미안함을 느끼며 B의 구명을 생각하는 점을 인물 간의 화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사형 집행장에서 ‘나’가 느끼는 복잡한 심리를 서술할 뿐, ‘나’와 B 사이에 형성된 대결 의식의 원인을 탐색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경희에 대한 ‘나’의 복합적 심리가, [B]에서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B를 구하고 싶어 하는 ‘나’의 복합적 심리가 드러난다. ② [A]에서 경희의 설명을 통해 경희가 B와 결혼하게 된 경위가 밝혀지며, [B]에서 ‘나’는 자신이 총을 쏘지 않더라도 다른 네 사수의 탄환이 B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며 B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④ [A]는 ‘나’가 경희를 만난 일을 회상하는 부분이며 대부분 과거형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에 [B]는 ‘나’가 상념에서 벗어나 사형 집행 상황을 인지하는 부분으로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고조된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⑤ [A]에서는 ‘나’가 경희에게서 들은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경희가 B와 결혼하게 된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5 ‘나’는 방아쇠를 당기길 주저하는 자신의 태도를 B와의 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인식하며 대결에 정면으로 임하고자 방아쇠를 당긴다. 이는 그동안 B와의 대결로 쌓인 패배 의식에서 비롯된 생각으

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된 것은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경희와 꿈과 공기총’은 ‘나’가 어린 시절부터 B와 벌인 대결과 관련된 소재이며, 사형 집행의 순간에 이를 떠올리는 것은 ‘나’가 현재 상황을 어린 시절 대결의 연장선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나’는 승리감을 느끼면서도 이내 이를 부정하며 B를 구하고 싶어 하는 모순된 심리를 드러낸다. ⑤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서 B를 쏘지만 혼몽한 의식 속에서 승패를 단정하지 못하며 참담함을 느낀다.

6 ‘나’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 B와의 대결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해설 ①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은 사수와 최수의 관계로 마주한 ‘나’와 B의 대결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산골짜기의 적막함 속에 웅산한 느낌의 쇠불이 소리만 들리는 묘사를 통해 사형 집행장의 황량한 분위기를 부각한다. ③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은 발포를 위한 절차이므로 작중 전개에 긴장감을 준다. ⑤ 경희와 만나 그간의 일을 듣는 회상이 일단락되고 ㉔에서 사형 집행장의 상황을 묘사하므로, 장면을 전환하는 서사적 기능이 있다.

7 ‘나’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벌인 공기총 대결에서 입은 컷바퀴의 상처를 통해 그동안 B와 있었던 대결을 떠올린다.

05 판문점

본문 041~04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분단에 대한 아픔과 고착된 이데올로기의 이질감을 전달하고 있다.
- 04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장면에 따라 마치 1인칭 관찰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모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0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 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진수는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여기자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 15 회담장 밖의 외부인들은 사진을 찍거나 킬킬거리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 17 진수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지프차에 타는데, 불안해하는 여기자에게 어느 쪽 차인지 모르면서 거짓말로 복측 차라며 안심시킨다.
- 18 여기자가 진수를 만나러 온 것이 복측의 암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⑤ 2 ③ 3 ③ 4 ⑤ 5 ① 6 소나기가 내리기 전 회담장에서는 상대를 적대시하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소나기가 내리면서 대화를 중단하고 일제히 창밖을 응시하는 것으로 보아, 소나기가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1 진수는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지요,' 라고 말하며,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진수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당신들은 좀니까 ~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라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북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② 여기자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라며 남북 교류에 대해 낙관적으로 믿고 있다. ③ 진수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라며 인간을 도구처럼 효율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북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④ 여기자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라며 남한의 자유를 비판하고 북한의 정치 체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2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장면에 따라 마치 1인칭 관찰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모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지적 작가에 대한 서술로, 이 글의 전반적인 서술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서술이다. ④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서술로, 장면에 따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상상력을 가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서술이다.

3 ㉠은 남북한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본 외국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진수는 여기자의 생각을 '무서운 추상'이라고 지칭하며 그 말을 통해 자신은 여기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큰 윤곽'이란 남북이 '세부'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화해를 지향해야 한다는 여기자의 주장을 담은 말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편견이 해소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④ 사건을 찍으며 키를키를 웃고 있는 장면은 회담장 밖 인물들의 모습으로, 판문점이 지난 비극성에 대해 불이해를 드러내는 외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회담장 안의 상황을 나타낸 표현으로 회담 상황이 순조롭지 않음을 묘사한 것이다.

4 '스피커 소리'는 회담장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비유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다른 낱말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답 해설 ㉠~㉢은 비유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5 남한에 돌아온 진수가 자리에 누워 상상하고 있는 장면으로, '조금쯤 무리를 해도 용서가 될 듯싶은 평범직한 언덕 같은 관용', '약간은 그렇게 살 만도 할 것 같긴 해요.'라는 여기자의 말을 통해 북한 사회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진수가 자리에 누워 상상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실제로 진수와 여기자가 다시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진수가 아닌 여기자의 생각이 진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③ <보기>에서는 남한 사회에 대한 여기자의 호의적인 반응이 진술되고 있다. ④ <보기>의 내용이 편지임을 알 수 없고, 제시된 부분이 여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북한 사람들의 속내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다. ⑤ <보기>의 서술을 통해 여기자가 진수와 만남을 후회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여기자의 호의적인 진술로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06 차나 한잔

본문 049~056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04 '그'가 김 선생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9 '그'가 경제적 궁핍이 부부 사이의 각박함과 비정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부장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신문사 문화부장은 '그'의 만화가 연재되지 못한 이유를 기사 쪽 주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12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13 어린이 신문은 '그'가 이미 연재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15 '아톰 X 군'은 '그'가 그린 만화 속 캐릭터이다.

17 옆방 아주머니의 재봉틀 소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가 화를 내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③ 4 ④ 5 ① 6 만화 7 '미역국 먹다'는 '퇴짜를 맞다'의 관용적 표현으로, 만화 연재 부탁에 대한 문화부장의 거절을 '그'가 알아차렸음을 알려 준다.

1 '그'는 김 선생에게 자신이 연재를 부탁하러 갔다가 거부당한 일을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 눈알을 부러리면서 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참값을 앞질러 내 버리던 ~ 날 무안하게 해 줬었지.'라는 내적 독백을 교차하여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는 것은 시공간적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서술되는 것을 말하는데,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며 군대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지만 이것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주요 사건인 '그'의 해고에 대해 인물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살피볼 수 없다. ⑤ '그'의 해고 외에 특별한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차나 한잔'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전통적 미덕조차도 각박함과 비정함으로 변질되게 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차나 한잔'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니다. ③ '그'는 만화가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과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차나 한잔'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니다. ④ 개인적 욕망과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고, 이것이 '차나 한잔'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니다. ⑤ 자유보다는 경제적 불안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고, 이것이 '차나 한잔'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니다.

3 ㉠은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그'가 김 선생에게 자신의 불안감과 정체성 혼란에 대해 털어놓으며 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① 문화부장의 반응과 다르게 만화가 연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그’의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다. ② 문화부장이 ‘그’를 안심시키려고 둘러대는 말이다. ④ 술집에 있는 다른 패들의 소리로,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 늘어놓는 말이다. ⑤ 술집에 있는 다른 패들의 소리로, 상대방의 반복되는 이야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말이다.

- 4 ③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이고, ⑤는 ‘그’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자 거절한 문화부장이다. ⑥는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그’에게 말하고 있으므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③는 ‘그’의 작품이 연재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둘러대고 있다. ② ⑥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무안을 주고 있다. ③ ⑤는 ‘그’에게 해고 사실을 설명하고 ⑥는 연재 부탁을 거절하는 말을 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차를 마시자고 한 것이다. ⑤ ③는 ‘그’에게 해고 사실을 알리고 ⑥는 연재 부탁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부정적 감정인 비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 5 ‘그’가 군대에 있을 때를 회상하는 것은 그곳에서마저 ‘정훈’으로 떨어져 부차적인 일을 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만화를 그리는 일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연결 짓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그’가 ‘아름 X 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모순 형용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는 것은 ‘문화부장’과 차를 마시며 해고의 말을 들었던 자신의 비참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마저 실패한 ‘그’의 비애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07 황홀한 실종

본문 057~06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주인공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자신의 망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 04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 07 이 작품의 제목인 ‘황홀한 실종’은 자아를 잃어버린 채 망상 속에서 사라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9 윤일섭은 불안감에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된다.
- 11 손 박사는 경계선 안쪽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윤일섭의 증세를,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전도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⑤ 5 ③ 6 ⑤ 7 윤일섭이 자신을 상담해 왔던 손 박사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는 장소이다.

- 1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인 윤일섭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야기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서술자가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 2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를 통해 손 박사의 처방에 따라 윤일섭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를 통해 손 박사가 윤일섭의 끊임없는 질문에도 귀찮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에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를 통해 윤일섭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혹성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를 통해 손 박사가 치료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윤일섭이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남모름 곤욕을 치르면서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었다고 하였다.

- 3 [A]에서 손 박사는 자신의 처방에 대해 윤일섭을 설득하려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 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유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며 윤일섭에게 은행에 다시 가 보거나 지금 그곳을 떠올려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윤일섭의 반박에 수긍하는 말하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문제점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윤일섭이다. ③ 손 박사는 윤일섭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④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윤일섭이다.

- 4 처음에는 쇠창살을 부숴 없애야 한다는 손 박사의 처방을 잘 따랐으나, 창경원에서 동물 우리를 보고는 분노를 느끼고 그의 처방을 부정한다.

오답 해설 ①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그에겐 그것을 부수라 봐도 댄 셈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손 박사는 윤일섭의 증세가 모두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처방을 내린 것이다. ③ 윤일섭은 손 박사의 처방이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꾀수’라고 하였다. ④ 손 박사는 윤일섭에게 ‘불편스런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라며 처방하였다.

- 5 윤일섭의 ‘자기방어 욕망’은 체제의 보호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것을 거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경원의 동물 우리를 보고 윤일섭은 세상에 쇠창살은 존재하며 쇠창살 안쪽의 존재들을 선택받은 자들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에서 ‘커다란 각성’은 그가 동물 우리를 보며 떠올린 생각을 말한다. ② ‘마음속에 숨어 있는 쇠창살의 환영’은 세상을 쇠창살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하는 윤일섭의 분계선임을 알 수 있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에게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때 장애는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언제 은행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⑤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체제에 추방될까 봐 나타나는 행동으로 기존 질서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관련된 것이다.

- 6 사자나 원숭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로 윤일섭을 자각하게 하는 대상일 뿐,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사자나 원숭이들을 지배하거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사자나 원숭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선택받은 자들’은 윤일섭이 만든 분계선에서 쇠창살 안쪽의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쇠창살 바깥쪽의 사람들이다. ② ‘선택받은 자들’은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다. ③ ‘선택받은 자들’은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라며 자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에 분노한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윤일섭이 속하고 싶어 하는 집단이다.

08 당제

본문 065~07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작품의 제목인 ‘당제’란 마을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 03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외된 농촌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한 작품이다.
- 06 ‘증략 부분 줄거리’ 이후 목물 장수와 자리실 영감의 대화와 자리실 영감과 삼식이, 이장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 10 도깨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연출한 가짜 도깨비이다.
- 11 이 작품에서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 주는 존재로 묘사된다.
- 15 삼식이, 이장 등의 일부 주민은 당나무를 팔기를 원하지만, 자리실 영감 등은 반대한다.
- 16 일부 주민은 경제적 이익을 원하지만, 자리실 영감과 같은 인물은 전통을 지키려 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④ 4 ④ 5 ① 6 도깨비 7 농촌 사람들이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쌀값을 매기는 자들을 데려가서 농촌 실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자신의 동네로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 1 마을 사람들과 자리실 영감이 사용하는 방언을 통해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주로 대화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배경 묘사로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등장인물들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고 토막 형태의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⑤ 외부인에게 당나무를 팔지 않으려는 자리실 영감의 말에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영감의 고집을 읽을 수 있으나 외양을 묘사하여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2 삼식이와 이장은 어차피 마을은 물에 잠길 것이고 윗동네도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므로 당나무를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자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팔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미리 정해진 사람이 다리 밑에서 도깨비 역할을 하도록 꾸미는데, 이때 도깨비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성을 써서 연기한다. ②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게 밥을 주면서 쌀값 문제, 농촌 현실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③ 외부인들은 마을이 수몰되면 당나무도 썩고 말 것이라며 거래를 시도한다. ④ 자리실 영감은 당나무를 조상과 마을의 상징으로 여기고, 당나무를 파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 3 근래에 생긴 풍속인 ①은 도깨비를 부르는 것인데, 이는 마을 사람들 몫이 도깨비 흥내를 내는 것으로 실현된다.

- 4 이 글에서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초현실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이 당제 때 함께 모여 도깨비에게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도깨비는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돕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도깨비는 당제 때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주며 소원을 비는 제의의 대상이다. ③ 당제 때 부르는 도깨비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연기하여 만들어 낸 존재이다. ⑤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가 으쨔는가,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 흘려 가는 일도 없고’에서 알 수 있다.

- 5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농민들이 공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말이 아니라 공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드러낸 말이다.

오답 해설 ② 농민들이 지은 쌀농사에 대해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 말이다. ③ 마을이 수몰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온 외부인에 대한 자리실 영감의 반감이 담겨 있는 말이다. ④ 삼식은 전통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따르고 싶어 한다. ⑤ 삼식이와 이장은 물에 잠기지 않은 윗 당나무까지도 비싼 값을 부르는 외부인에게 팔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당제를 통해 공동으로 의식을 치르며 결속력을 다졌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자리실 영감은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 6 이 글에서 ‘도깨비’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민속 신앙적 대상으로, 현실과 초월적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09 방울새

본문 072~07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서술자에 의해 기술되는 인물의 심리가 ‘그녀’로 국한되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03 단순한 경로 이동을 보이고 있고, 서술의 대부분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관찰과 상념으로 서술되고 있다.

07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이라는 내용을 통해 남편이 감옥살이를 하기 전에 경주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그녀’가 남편과 맥락에 맞지 않은 대화를 한 것은 남편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와 남편은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받을 뿐이다.

15 방울새가 동굴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경주의 말에서 ‘그녀’가 감옥에 갇힌 남편을 떠올리는 것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⑤ 4 ② 5 ④ 6 ③ 7 노래 8 ‘그녀’는 눈꺼풀의 경련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불안함을 익숙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1 조류원에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방울새를 만났지만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라고 했으므로, ‘그녀’는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부리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② 경주처럼 ‘그녀’ 역시 조류원에서 방울새를 처음 보았다. ③ 조류원에 들어서자마자 ‘씩 줄지 않은 냄새’가 풍겼지만 이내 익숙해져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는 후각이 좋지 않아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이 아니다. 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며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녀’는 경주에게 ‘방울새’ 노래를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 글은 단순한 공간 이동 경로만 보이고, 서술의 대부분은 ‘그녀’의 관찰과 회상,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점 화자인 ‘그녀’의 시선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노래 가사와 방울새의 처지를 대조시켜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 경주는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동굴에서 감옥을 떠올리고 있다. 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으로 남편을 비유하여 감옥에 갇힌 그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딸의 감기에 대해 묻는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보낸 마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맥락 없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그녀’와 남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본다’, ‘보낸다’ 등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② 회상 장면을 삽입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그녀’와 남편의 대화는 큰따옴표 없이 처리되며 작중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나, 이것이 빠른 호흡을 유도하려는 장치는 아니다. ④ ‘그녀’와 남편의 대화에서 침묵이 나타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 ㉠은 남편의 부재로 인한 ‘그녀’의 불안과 막막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죄책감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갑작스럽게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그녀’는 당혹감을 느꼈다. ③ 남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으로, 남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④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녀’가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꾸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⑤ ‘씩고 있는 쓰레기’나 ‘막혀 있는 시궁창’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부정적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참지 못했던 남편이 사회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5 조류원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은 생명력을 잃은 모습 이므로, 주어진 환경에 저항하는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그녀’는 조류원에 들어서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떠올린다. ② 방울새는 동굴에 살고 있다는 경주의 말에서 ‘그녀’는 감옥에 갇힌 남편을 떠올린다. ③ ‘그녀’는 조류원의 ‘새장’과 남편이 갇혀 있는 ‘감옥’을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그녀’는 조류원에서 감옥을 연상하고 있다.

6 ‘미풍의 보리밭 이랑’은 새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깥세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깥세상의 자연물에 해당하는 ‘푸른 하늘’이 ‘미풍의 보리밭 이랑’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시멘트로 탄탄하게 불박아 놓은 가지’와 ‘두툼한 가지’, ‘죽은 나뭇가지’는 조류원에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이다. ④ ‘시멘트 천장’은 조류원의 천장을 가리킨다.

7 ‘그녀’는 방울새라는 존재의 본질은 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10 새를 찾아서

본문 079~08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시대의 반영보다는 개인의 성찰과 성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며, 각박한 사회의 모습이나 소시민의 삶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6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일 뿐이고 이 두 체험이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07 청년들은 ‘나’가 일행을 찾아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10 텐쳐꾼들의 텐쳐는 ‘나’와 누나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을 빌려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11 ‘나’는 새를 잡는데 성공했지만 손에서 금방 놓치고 말았다.

12 누나가 새집 구멍에 손을 넣어 새를 잡는 일을 한 적은 없다.

15 한계령 계곡은 ‘나’가 일행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해가 뜰 때까지 머문 장소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⑤ 5 ③ 6 ① 7 ②는 ‘나’가 새 잡기 실패를 깨닫게 된 시간이고, ⑨는 ‘나’가 답사 일행 찾기를 포기한 시간이다.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경계의 시간대로, 이것은 실패(좌절)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존을 상징한다.

1 누나가 나뉘구는 ‘나’를 부추할 의향이 없었던 것은 방으로 새가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하고 흥분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나’와 누나는 우리 집에도 새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내가 누나의 무릎을 탔다.’라고 하였으므로 ‘나’가 누나의 어깨 위에 올라가 새 집 구멍에 손을 넣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누나가 말해 준 대로 꼭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④ ‘내가 새의 깃털을 꼭 움켜쥐는 순간 ~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고 하였다.

2 작품 속 인물이자 주인공인 ‘나’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교차하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와 현재에서 모두 ‘나’가 서술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③ 서술자가 주인공인 ‘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⑤ 외부의 서술자가 아닌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3 [A]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나’와 누나가 새를 잡는 과정과 행동을 현장감과 생동감이 느껴지게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누나의 이동 경로는 집 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에서는 과거의 시선으로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③ 과거의 사건을 전달하고 있을 뿐 현재 ‘나’의 판단이 나타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나’와 누나가 겪었던 일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4 현재의 ‘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가져온 ‘텐찌’를 사용하지만 답사 일행을 찾는 데 실패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나’에게 ‘텐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물건이었다. 과거의 ‘나’에게 ‘텐찌’는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도구로써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오답 해설 ① ㉠이 답사 일행을 찾는 것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모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은 새를 잡기 위해 쓸모 있는 물건이다. ② ㉢은 ‘나’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 내가 가지지 못한 물건이었다. ③ ㉤은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했는데’라고 했으므로 청년들이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 아니고, ㉥은 텐찌꾼들이 들고 다니던 물건이다. ④ ㉦은 일행을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청년들에게 의미를 주는 물건이 아니고, ㉧은 ‘나’와 누나로 하여금 텐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하게 하는 물건이었다.

5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마찬가지로 실패를 경험한다. 이로써 인생이란 반복되는 탐색과 실패의 연속이며 그 자체가 인생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현재의 ‘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하였다면, 과거의 ‘나’도 누나와 함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대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새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새를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다. ②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의 반복에 대한 행위로 과거의 ‘나’는 새를 찾고 있고,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을 찾고 있다. ④ 실패의 경험으로 과거의 ‘나’는 새를 놓치고, 현재의 ‘나’는 답사 일행을 찾는 것을 포기한다. ⑤ ‘나’는 답사 일행을 찾으며 유사한 경험인 유년 시절의 ‘새 집이’ 사건을 떠올린다.

6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그믐달이 새어들고 있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새가 방문 밖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다른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③ 새의 형용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방 안에 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밖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숨을 거둔 새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숨을 거둔 새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새의 선물

본문 086~09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자아 분리는 ‘나’가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두 자아를 통합하려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표면적인 갈등 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며, 세대 간의 갈등 양상도 살펴볼 수 없다.

06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액자식 구성 방식의 작품일 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08 ‘나’는 허석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을 할 뿐, 울고 있지 않다.

09 허석은 ‘나’에게 직접 떠난다고 말을 한다.

11 허석이 ‘나’를 이성으로 느끼는 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나’는 허석이 생각날까 봐 그와 관련된 장소에는 일부러 가지 않았다.

13 허석이 다시 돌아온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③ 5 ② 6 ③ 7 자신의 사랑이 환상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에 대한 환멸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가 내면적 성장을 겪는 과정이다.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의 내면은 주인공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직접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이 글은 성장 소설로 열두 살인 ‘나’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③ 이야기 속 인물인 ‘나’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은 어른이 된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2 허석은 ‘나’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답 해설 ① 허석이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삼촌 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허석은 ‘나’에게 ‘머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라며 자신이 떠나는 일에 대해 직접 말해 주고 있다. ④ ‘나’는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라며 허석에 대한 감정이 운명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허석이 그렇게 떠나 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라며, ‘지나여름에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라고 하였다. ‘제방 길’은 자신이 허석을 처음 보았던 곳이라고 믿고 있던 곳으로, 그가 떠오를까 봐 일부러 ‘제방 길’을 피해 다닌 것이다.

- 3 [A]는 허석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나’의 상상이 서술된 부분이다. 허석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상상 속 장면일 뿐, ‘나’가 실제로 행한 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나’의 상상 속 장면일 뿐, ‘나’가 경험한 일이 아니다. ③ ‘나’가 상상 속에서 자신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⑤ ‘나’가 겪은 좌절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 4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낭만적인 감정을 더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허석의 말을 듣고 당황해서 ‘소의 밭통에서 도로 고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되풀이해서 생각했다고 하였다. ②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이라며 이 길을 피해 다녔던 ‘지난여름’에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④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라며 허석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에 감정이 격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삶의 경고’라고 표현하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5 ‘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를 분리한 것이므로, 이 둘 사이에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바라보는 나’인 본래의 ‘나’가 상처받지 않거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여지는 나’를 만들어 낸 것이다. ③ ‘나’는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하였다. ④ ‘나’는 ‘보여지는 나’를 방어 기제로 만들어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있다. ⑤ ‘나’는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인 ‘보여지는 나’가 이별을 말하는 허석에게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량한 목소리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 6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은 ‘나’가 허석과 동일시하여 ‘그’라고 착각했던 대상의 모습이다. 이 글에서 ‘나’와 허석이 재회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나’와 허석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이 허석이라고 생각했다. ②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직접 보고는, 허석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④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이 더러운 낫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라는 것을 알고 도망친다. ⑤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은 ‘나’가 허석을 처음 만난 날 허석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장면이다.

PART 2 | 극·수필

01 강령 탈춤

본문 094~10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황해도 강령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의 대본이다.
- 03 가면극은 극 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하며,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 05 갈등의 일시적 해소 및 재담 사이의 구분은 춤의 기능이다.
- 10 둘째양반이 ‘앞으로 두어 걸음 나’오는 동작은 극의 특성상 대화에 수반되는 동작일 뿐, 풍자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
- 11 만양반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한시 구절을 읊는 모습은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을 보여 준다.
- 13 도령의 면상을 친 인물은 말뚝이 1이 아니라 말뚝이 2이다.
- 15 말뚝이 1과 말뚝이 2는 일상적인 서민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④ 4 ⑤ 5 ③ 6 노새라네, 꼴물이라네 7 말뚝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함으로써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말뚝이가 더 강한 힘을 얻으며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 1 탈춤은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으나, 이 글에서 관객이 극에 참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탈을 쓰고 춤, 노래, 재담을 통해 사회 비판과 풍자, 해학을 표현하는 탈춤이다. ②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등에서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③ 만양반이 쓰고 있는 ‘개질량’을 통해 인물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양반들이 한시와 고사를 읊으며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쌍놈’과 같은 비속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2 말뚝이 1은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말뚝이 2는 ‘꼴물’을 ‘풍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 양반을 놀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말뚝이 1과 말뚝이 2 모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말뚝이 1은 언어적 방식으로, 말뚝이 2는 비언어적, 언어적 방식으로 양반을 희롱하고 있다. ④ 말뚝이 1과 말뚝이 2 모두 과장된 몸짓과 표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말뚝이 1과 말뚝이 2 모두 높임말만을 사용하고 있다.

- 3 만양반의 늙음을 탓한 인물은 말뚝이가 아니라 만양반 자신이다. 이는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들었네 그려.’라는 만양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만양반과 둘째양반이 서로 ‘쌍놈’이라 부르며 대립하고 있으므로 양반 간의 갈등을 통한 부정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② ‘내 머리에 쓴 것을 뭤로 아느냐’는 만양반의 질문에 둘째양반은 ‘여보게 양아.’라며 엉뚱한 답을 하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양반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③ 만양반은 ‘개질량이라 해도 가이(개)도 요류이 있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개와 동일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으므로 양반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⑤ 말뚝이 2는 양반의 부름에 등장하며 ‘도령의 면상’을 치는데, 이는 양반을 희롱하며 양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므로 민중적 인물인 말뚝이를 통한 부정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 4 ⑥은 담배에 물을 축이는 표현과 관련하여 양반과 말뚝이가 갈등하던 재담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① ①에서 만양반은 ‘머리에 쓴 것’을 묻고 답하는 대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한시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②에서 만양반은 ‘개질량(개가죽 관)’을 ‘용수관(용의 수염으로 만든 관)’이라는 권위적인 이름으로 포장하며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③은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하며, 재담을 마무리하고 춤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④ ④은 몸악(반주)과 춤을 멈추게 하고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여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 5 ④는 ‘물’이라는 동일한 끝음절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며, ③도 ‘반’이라는 동일한 끝음절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오답 해설 ①은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② 대구에 의한 표현이나 언어유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몸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02 계속읽기

본문 101~10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인물의 내면 심리보다는 사건과 대화 위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05 글쓴이는 인목 대비의 측근 궁녀로 추정되며, 인목 대비를 선하고 인간적인 인물로, 광해군을 악하고 비정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 06 당시의 정치 상황이 작품의 주요한 배경인 것은 맞지만, 이 작품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보다는 인목 대비와 내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한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전개한다.
- 10 대군은 위기 상황에서 대비, 공주와 떨어져 혼자만 궁 밖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궁에 남을 대비와 공주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13 대비는 ‘강보에 싸인 어린것에게 무슨 별다른 뜻을 두셨을 리가 있겠느냐?’는 말을 통해 선조 대왕이 영창 대군을 왕으로 삼으려는 뜻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 14 광해군이 보낸 내관들이 대군이 지은 죄를 언급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⑤ 2 ③ 3 ④ 4 서소문 5 ④ 6 ② 7 ⑧은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어린 영창 대군의 절규를 보여 주며, 이를 통해 독자는 상황의 비극성에 공감하게 된다. 이 작품은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바탕으로 궁중 내 권력 투쟁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전달한다.

- 1 이 작품의 글쓴이는 인목 대비를 모시던 궁녀로 추측되며, 인목 대비와 영창 대군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서술한다.

오답 해설 ① 이 작품은 궁중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생활상을 그린 궁중 문학으로 분류되며, 전아하고 중후한 순우리말의 궁중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② 계축옥사와 인목 대비의 폐위라는 역사적 사건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어린 영창 대군을 궁에서 내쫓으려는 광해군의 냉혹함과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영창 대군의 비극적 운명이 대비되어 감정을 고조하는 효과를 준다. ④ 광해군 측 사람들이 영창 대군을 데려가기 위해 갈등을 빚는 사건과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상황의 긴박함과 그에 따른 감정이 잘 드러난다.

- 2 금부 하인들은 죄사슬을 들고 처소를 에워싸며 위협하지만 이로 인해 대비 측 내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대비는 처소 안에서 대군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슬퍼했으며, 이후 내관들에게 아직 어린 대군을 잡아내려 한다면 원통함을 드러낸다. ② 대비 측 내인들은 광해군이 보낸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처소 안에서 대군을 달래 대군이 궁 밖으로 나가도록 협력한다. ④ 광해군 측 내관들은 대비에게 대군을 내보내길 촉구하면서도 대비의 통곡에 눈물을 흘린다. ⑤ 내인들이 대군과 대비, 공주를 업고 차비문으로 왔을 때 광해군 측 내인들이 물리적으로 붙들어 대군만 문밖으로 나가게 만든다.

- 3 ⑥에는 죄인이 될 운명을 예감하고 혼자만 궁궐 밖으로 내쫓길까 불안해하는 대군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대군을 달래서 궁 밖으로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② 죄인이 될 운명을 예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죄를 인정하는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시간의 경과를 통해 지나지 않으려는 대군을 달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지만 대군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대군을 안심시키고자 대군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며 대군과 공주를 함께 궁 밖으로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 5 [A]는 궁궐 장정과 금부의 하인들이 바깥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며 대비마마에게 대군을 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B]는 선조 대왕이 늦은 나이에 대군을 얻고 극진히 사랑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대왕을 생각하면 이리 할 수 없다며 상대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거나 후일을 도모하고자 설득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B]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A]는 다른 이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B]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서 변 상궁은 대비마마에게 서운함을 내비칠 뿐 대비마마의 생각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B]는 ‘너희도~이 광경을 보고 어찌 참담하고 측은한 마음이 없겠느냐?’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짐작하는 질문으로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A]에서 변 상궁은 대비마마에게 의지가 되고자 죽지 않고 살아온 충심을 언급하며 대군을 내주지 않는 대비마마에게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다. [B]는 ‘이 모두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죄로구나!’와 같이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말하며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다.

- 6 당시 서소문이 죄인들이 드나드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죄인을 관대하게 대우하는 풍속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당시 내인과 관련한 궁중의 풍속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왕족을 보필하는 내인들은 엄한 규칙에 따라 평생을 수절하여야만 했다. ③ 광해군이 보낸 사람들이 죄 없는 내인들을 잡아갔다고 위협하는 장면은 광해군의 부당한 폭압을 보여 주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인목 대비 측근의 궁녀인 글쓴이는 인목 대비의 편에서 광해군 쪽 세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영창 대군의 상황을 비통해하는 글쓴이의 정서를 질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⑤ 사람들이 슬퍼하는 상황을 묘사하여 영창 대군이 내쫓긴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03 해유록

본문 108~11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인간사에 대한 평가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주로 묘사와 내면 심리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지 않다.
- 07 글쓴이는 후쿠젠지의 주변 경관 중 주저지에 인접한 무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09 아카마가세키에 가기 전 작품까지만 출판이 끝났다.
- 14 우리나라 명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 감탄할 뿐 경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도모노우라, ㉤ 오사카 5 ㉥ 6 ㉦

- 1 글쓴이의 여정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일본의 자연 경관이나 출판문화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오사카에 일본과 조선 사이의 기밀이 담긴 책이 출판된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선을 취한다. ② 객수가 표현되고 있지 않다. ④ 일본을 방문했던 경험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⑤ 설의 법을 통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 2 조정, 후추 등 조선에서도 유명한 일본인을 일본인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점을 예로 들어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쓰시마 번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통신사 일행이 가는 것을 말했다. ②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고 하였다. 조선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일본의 생활 풍속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성완이 제술관으로 왔던 당시의 글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 3 일본 사람들이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해괴망측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유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후쿠젠지의 자연 경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일본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라는 주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③ 글쓴이는 오사카에 서적이 많다는 것을 들고는 일본 출판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④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기밀을 담은 책들이 출판된 점에 대해 경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일본인을 중국인과 비교하여 일본과 중국 문화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 5 ㉢는 일본인이 자신의 선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명시하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④ ㉢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선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을 과이하게 여겨 일본의 선현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②, ③ 성완이 제술관으로 왔던 당시의 글이 책으로 출판된 점을 보고 놀라 혹은 신묘년 사신이 왔을 때의 글도 출판이 되었는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묻고 있다.
- 6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명시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타 국가를 여행하며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주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이 글은 기행문, <보기>는 기행 가사로 모두 추보식 구성이 나타난다. ⑤ 명을 중시하고 청을 배척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이슬 황금이오'라고 하는 등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아뇌당기

본문 115~12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의 유형을 나열한 후 특정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05 글쓴이는 자신이 백영숙에게 써 준 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 06 '야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야뇌'는 고루하고 거친 사람을 의미한다.

- 1 '야뇌'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변해 가는 모습을 먼저 제시한 후 이와 대비되는 백영숙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영숙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다. ② '영숙은 내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내게 '야뇌'라는 이름에 대한 글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④ 백영숙을 일반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자신을 '한서유인'으로 칭하며 '내가 어찌 화를 내겠는가?'라고 하며 세간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야뇌'란 백영숙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② '야'의 의미를 생김새가 예스럽고 복장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촌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한다. ③ '야뇌'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⑤ 백영숙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여 글쓴이에게 글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 3 옛사람이 누각이나 정자를 신축 또는 개축하거나 명승고적을 관광할 때 직접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산수유기이다.
오답 해설 ① 기인을 중심으로 쓴 인사잡기이다. ② 기는 사실 그대로 적는 한문의 문체이다. ④ 기의 문체는 부와 같으면서도 화려하지 않다. ⑤ 기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동시에 기록하여 영구히 잊지 않고 기념하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 4 세상 사람들은 ㉠을 험뜯고 비방한다.
오답 해설 ① 백영숙은 ㉠에 속하는 사람이다. ② 글쓴이는 ㉠은 야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 각박해진 세태를 좇는 것은 ㉠이다. ④ 굳세게 자립해서 속세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은 ㉠이다.
- 5 '교언영색'을 일삼는 자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글쓴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오답 해설 ① '야뇌'란 고루하고 거친 사람을 의미한다. ② '세상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으며 굳세게 우뚝 자립해서'에서 알 수 있다. ③ '야뇌다운 사람'이란 순박함과 질박함을 지닌, 각박해진 세태를 좇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⑤ '한서유인'이란 글쓴이를 일컫는 말로, 궁벽한 데 머무는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처사가 암자의 이름을 지었다.
- 03 처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③ 4 ⑤ 5 ④ 6 '아암'은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나에게 연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글을 쓴 이유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③ 세상 사람들을 제시한 후 이 처사가 이와 대비됨을 강조하고 있다. ④ '훗날 내가 처사를 찾아가 아암 앞의 늪은 나무 밑에 함께 앉게 되면'에서 알 수 있다. ⑤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2 이 처사는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한다. ③ 처사가 글쓴이에게 직접 암자를 '아암'이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글쓴이의 짐작임을 알 수 있다. ④ 부자가 서로를 지기로 삼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먹고살을 세상 사람들과 대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⑤ 세상 사람들이 남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 3 처사는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할 뿐 자연에 귀의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처사는 세상 사람들이 '남'을 '나'보다 중시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② 백영숙은 세간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④ '아늑'란 고루하고 거친 사람을 의미하며 속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며 사는 백영숙을 의미한다. ⑤ '아암'이란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서 연유한다는 것으로, 처사가 자신의 입자에 붙인 이름이다.
- 4 ①은 처사가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나타낸다. '원시의 본연한 자태' 또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로 생명의 본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자식을 구하지 못한 '나'를 의미한다. ② '나'가 극복하지 못한 인간적 감정을 의미한다. ③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공간에 해당한다. ④ 절대자를 의미한다.
- 5 '천한 것이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는 세태에 대해 직접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문학적 해석의 주체인 글쓴이이다. 문학적 해석의 대상인 '처사'의 가치관은 이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누정기가 창작이 되려면 건축물의 주인이 글쓴이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문학적 해석을 하는 주체이며 '아암'과 '처사'는 문학적 해석이 되는 대상이다. ③ '건축물의 이름'은 공간화된 인격을 표상한다. ⑤ 처사가 손수 나무를 길러 내는 모습을 통해 처사가 본업에 갖은 힘을 다 쓰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4 방언이나 비속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06 내레이터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9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12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발을 태운다.
- 14 점례는 규복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끝까지 침묵한다.
- 15 군인들은 규복이 오랫동안 대발에 숨어 지낸 것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마을 사람들을 추궁한다.
- 18 이웃 아낙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발이 없어지게 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19 규복의 죽음을 목격한 점례는 실의에 빠진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④ 4 ⑤ 5 ⑤ 6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간다. 7 ①은 엉뚱한 대사로, 규복의 죽음을 둘러싸고 마을 사람들과 최 씨 사이에 고조되던 긴장감을 이완하는 역할을 한다.

- 1 이 글은 화곡으로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감정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다양한 소품을 활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지시문이나 대사를 통해 무대 배경을 짐작할 수 있지만 무대 배경 교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화곡으로 서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 김 노인은 대발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착각한 것이 아니라, 총소리를 듣고 뗏목이 사냥이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오답 해설 ①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이 사월과 규복의 관계를 의심하며 자신을 쳐다보자 화를 내며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② 사병들이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끌고 나온 것과 점례가 규복의 시체를 정리해 주는 것을 통해 규복이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최 씨의 절규와 이웃 아낙 갑의 말을 통해 사월이 양젖을 먹고 자살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병 A가 마을 아낙들에게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환히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발을 태우려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⑤ 군인들은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규복이 대발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 3 '사람 살려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라는 '최 씨'의 외침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절망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능적 욕망이 왜곡되는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밭을 불태우는 장면은 전쟁의 비인간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의 '전쟁이 인간성을 말살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 ② '이웃 아낙 갑'의 말은 전쟁으로 인해 민중들이 지속적인 상실감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의 '전쟁이' '민중의 삶을 짓밟는 현실을 보여 준다.'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대밭을 지키려 했던 '양 씨'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선택이 무의미해졌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전쟁이' '민중의 삶을 짓밟는 현실을 보여 준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⑤ '점례'의 말은 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허망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 4 김 노인은 전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역할은 희망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김 노인의 대사는 전쟁의 참혹함과 대비되어 오히려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연출 지시이다.

오답 해설 ① 사병 A와 B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썰레네와 이웃 아낙들은 대밭이 불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양 씨는 대밭을 지켜 내기 위해 애원하는 목소리와 절박한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점례의 애원에는 대밭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므로 태우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대밭에 숨어 있는 규복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5 '대밭'이 불타는 모습을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허탈한 얼굴'과 대비를 이루며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한다.

오답 해설 ① 대밭에서 그것을 태우려는 군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② 점례에게 대밭은 생계유지의 수단이었으며, 규복과 사랑을 나누며 애육을 충족하던 공간이다. ③ 양 씨에게 대밭은 여러 대에 걸쳐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이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공간이다. ④ 군인들이 대밭에 불을 질러 태우는 행위는 전쟁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07 주라기의 사람들

본문 135~14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03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이 드러나지만, 풍자의 기법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 06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 08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있지만,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1 소장이 광부 박 씨를 회유하는 데 천안택이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장이 천안택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 14 만석이 회사의 요구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한 이는 광부 박 씨가 아니라 소장이다.

- 15 만석은 갯 속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고의 책임을 무고한 자신에게로 돌리므로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③ 3 ③ 4 ⑤ 5 ② 6 요약적 7 석탄을 이용하는 문명화된 시대에 살면서도 탄광촌의 광부들과 그 가족들은 '주라기'와 같이 문명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 1 광부 박 씨가 천안택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소장은 광부 박 씨에게 지부장이 될 수 있게 밀어주겠다고 말하며 광부 박 씨를 회유하고 있다. ② 천안택은 소장과 광부 박 씨의 대화에 끼어들어 지부장을 하라는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광부 박 씨에게 말하고 있다. ④ 광부 박 씨는 결국 소장에게 탄원서를 내주며 회사 측의 사고 처리 방식에 동조하게 된다. ⑤ 만석은 갯 속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아들을 꺼안고서 사람들 앞에서 '이 자랑스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 2 ㉠은 광부 박 씨를 회유하기 위해 한 말이지, 그를 신뢰하여 도와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는 광부 박 씨의 행동을 막으려고 위협하는 말이다. ② ㉠은 사고의 원인을 가스 누출이 아닌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으로 처리하려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말이다. ④ ㉠은 광부 박 씨를 회유하여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된 것에 만족하며 한 말이다. ⑤ ㉠은 만석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광부들이 만석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재촉하며 한 말이다.

- 3 자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었다는 만석의 말은 선의의 거짓말로서 관객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객들이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배우들이 실제와 같은 소품을 사용하여 연기하고 있으므로 관객들은 무대의 모든 인물과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② <보기>를 통해 배우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넨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극에 대한 관객의 몰입이 깨져 관객의 비판적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관객들은 무대 위 만석의 처의 상황을 현실인 것처럼 느끼며 그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몰입하게 될 것이다. ⑤ 만석이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연극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 4 지부장은 소장과 광부 박 씨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을 뿐, 만석이 말한 '사실'을 이용해 지위 상승을 꾀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만석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은 만석에게 '어떻게 된 거야?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광부들이 만석이 말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② 만석이 말한 '사실'에 대해 지부장은 '그건 사실이 아냐'라고 말하고 있다. ③ 광부 박 씨는 소장의 편에서 있으므로 광부 박 씨와 소장이 만석에게 바라는 '사실'의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광부들에게 '제 입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사고였어.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라고 말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 5 소장과 광부 박 씨는 만석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하려는 이기적인 인물들이다. 따라서 작가는 이들을 통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소장과 광부 박 씨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윤동주의 시를 내레이션 형식으로 삽입하여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03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비롭고 환상적인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 06 실존 인물인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자 친구였던 송몽규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 07 동주는 자신의 길을 고민하지만 시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괴로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1 몽규가 동주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2 혁명적인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인물은 몽규이다.
- 15 동주는 몽규와 함께하고자 하나 몽규가 동주를 소외시키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⑤ 4 ① 5 ③ 6 빗소리 7 동주의 목소리로 내레이션 되고 있는 「쉽게 씌어진 시」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 1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 오답 해설** ② 6첩방이라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동주의 내면적 고뇌와 시대적 아픔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솔로 모션의 사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과거 회상 장면과 현재 취조실 장면을 교차하여 보여 주며, 동주의 내면적 갈등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 쿠미는 동주의 시를 출판하려는 일본인 여성으로, 동주와 교감하는 인물이다. 쿠미가 몽규와 독립운동을 함께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특고는 일제 강점기에 정치 운동이나 사상 운동을 단속하기 위하여 둔 경찰로, 일제의 권력과 폭압을 상징하며, 동주와 몽규 모두에게 억압적인 존재이다. ② 동주는 시를 통해 시대적 아픔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몽규는 독립운동의 중심인물로서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⑤ 동주는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시대적 아픔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3 동주 스스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적으며, 자신의 시 쓰기와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을 뿐, 몽규가 ‘시대적 억압 속에서 시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동주는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과 시대적 고립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동주의 시는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③ 동주와 몽규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④ 동주의 시는 그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감정 이입을 돕는 역할을 한다.

- 4 취조실 장면에서는 특고의 강압적인 심문과 윤동주의 무력한 처지가 강조되어야 하므로, 따뜻한 색감의 조명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조명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윤동주의 시적 감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가 적힌 노트와 만년필을 소품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다. ③ 윤동주의 시 낭송 장면에서 조용하고 천천히 읊는 연출은 그의 내면적 고뇌를 부각하는 데 적절하다. ④ 윤동주와 송몽규의 대비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공간을 대조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출 방식이다. ⑤ 몽규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에서 힘 있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독립운동가적 면모를 강조하는 데 적절하다.

- 5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시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를 쓰는 일을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일본의 6첩방에서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②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을 **솔로** 천명이라 말하고 있다. ④ ①의 내용을 변주한 ⑤에서는 ①과 달리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의지라는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⑥ 홀로 침전하던 ‘나’와 등불로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나’가 악수를 하는 것은 두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으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 6 S#85와 S#86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빗소리’는 서로 다른 시공간인 S#85와 S#86을 연결해 주며, 인물의 암울한 상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09 우리들의 블루스

본문 150~15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이 작품은 드라마 대본으로 갈래상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 06 이 글에서는 미란과 은희 사이에서 갈등을 증재하는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 10 은희의 일기장에는 주로 생선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
- 12 미란은 은희가 유일하게 자신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3 미란은 은희가 자신에게 따지러 서울까지 올라온 것을 오히려 고마워한다.
- 14 은희는 미란이 세 번째 이혼했을 때 미란이 연락이 안 돼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 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② 4 ⑤ 5 ③ 6 ③ 7 은희의 목소리로 그녀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여 은희가 미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1 이 글은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본이므로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은 희곡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② 드라마 대본과 같은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③ 이 글의 S#11, S#29, S#30은 제주도 은희의 집을, S#34는 서울에 있는 미란의 마사지 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제주도 방언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⑤ 이 글은 드라마 대본에 해당하므로 연출과 연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2 은희는 미란이 같이 산 남편이 세 명이나 있었어도, 딸이 있어도 맘 편한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에 마음 아파한다. 따라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오답 해설 ① S#11의 '미란이가 오면, 푸름마를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③ S#11에서 미란은 은희의 허락 없이 은희의 일기장을 읽다가 자신에 관해 쓴 글을 발견한다. ④ S#34의 '너 세 번째 이혼했을 때,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라는 은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S#34의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는 미란의 말에서 미란이 은희에게 어린 시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일기장이 미란과 은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그 갈등을 계기로 미란과 은희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일기장이 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희는 일기장에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가? 개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라며 미란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적고 있다. ③ 은희의 일기장에는 그날 물이 좋은 생선이 무엇이었고, 어떤 생선이 잘 팔렸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④ 미란은 은희가 자신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다. ⑤ 일기장에서 유발된 은희와의 갈등 속에서 미란이 과거 일을 돌아보며 그동안 은희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을 풀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4 ㉠에서는 미란 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동작과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지문(지시문)에 해당한다. 이를 읽는 독자는 지문에 따라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표정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일의 차례를 나타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5 ㉠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란이 아니라 은희이다. ㉡은 은희의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미란이 자신의 목소리로 은희의 일기장을 읽고 있는 장면이므로, 목소리의 주인공인 미란이 화면에 나타난다. ② ㉠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은희이지만 일기장 내용과 관련된 인물인 미란을 강조하기 위해 효과음으로 처리된 장면이므로, 화면에는 미란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은 효과음으로 제시된 장면이므로, 이전에 미란이 은희를 닮으면서 했던 말을 은희가 회상하는 장면이다. ⑤ ㉡은 은희의 내레이션 부분으로, 장면에 등장하는 미란은 은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관객들만 들을 수 있다.

6 S#30에서 은희가 혼잣말을 할 때에는 미란에 대한 민망함보다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분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목소리 톤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미란이 처음에는 편하게 웃으며 일기장을 읽다가 놀라며 슬퍼하고 있으므로, 일기장과 미란의 표정을 번갈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② 미란이 예전에 자신에게 의리 없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한, 후후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은희의 모습으로 볼 때, 분해하는 마음이 은희의 표정에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미란은 처음엔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이 은희인 것을 몰랐다가 등, 손, 발을 보며 은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은희의 등, 손, 발을 차례로 클로즈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미란과 은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갈등을 풀고 우정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러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깔아 넣는 것은 적절하다.

PART 3 | 갈래 복합

01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본문 160~16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 05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7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와 대상 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① 3 ① 4 ② 5 ④ 6 안개, 구름 7 4행의 '한계'는 화자가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한 곳이었으나, 11행의 '한계'는 스님으로 인해 화자가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곳이다.

- 1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간과 자연의 대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얽매임을 싫어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안개', '구름'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스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시적 대상인 '스님'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즐거워', '좋아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⑤ '새장', '자물쇠'와 대비되는 '하늘', '원결' 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2 화자는 시적 대상인 '스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즐거워', '좋아라'와 같은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안개', '구름' 등의 자연물은 드러나 있으나,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④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옥 새장', '금 자물쇠'를 세속적 가치로 볼 수 있으나, 화자는 이를 구속으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이 글은 마지막 11~12행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과 대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④ 점층적 표현이나 의인화는 이 글과 <보기>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새장', '자물쇠'와 '하늘', '원결' 등의 시어를 대비하여 스님과 대화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으나, <보기>에는 대비되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4 스님이 참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은 것은 화자이지 스님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스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웃고 해 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③, ④ 화자는 처음에 한계로 떠나고 싶어 했으나 한계사에서 온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즐거움을 느껴 더 이상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스님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스님의 말솜씨가 '시원한 바람'과 같다고 느끼며 좋아하고 있다.

- 5 화자는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뿐 탈속의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니며, 화자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부분도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새장과 자물쇠도 자신을 잡아 두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한계로 떠나고 싶어 하므로 한계로 가는 것이 화자의 소망임을 알 수 있다. ③ 스님과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라는 의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 ⑤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게 된 화자의 변화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2 소화사

본문 166~17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 04 꿈속에서 오경보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그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05 글쓴이는 매우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8 글쓴이는 설성에, 이윤지는 단양에 있어 송별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11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 13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스럽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즉 좋지 않은 일로 여긴 것이다.
- 14 '정보는 빙그레 미소를 머금'을 뿐 찬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③ 4 상소 5 ③ 6 ⑤ 7 당실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은 혼백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쪽에서 죽은 오경보의 혼이 남쪽에 있는 글쓴이에게 현몽했기 때문이다.

- 1 글쓴이는 대상인 오경보에게 해 주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송별을 하지 못했다.', '미처 써서 부치지 못했다.', '글씨 또한 써서 부치지 못했다.' 등과 같은 부정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인 오경보와 그의 죽음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꿈속에서 오경보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그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서두 부분에 두보의 시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한시를 삼입한 것은 아니다.

- 2 글쓴이가 꿈속에서 오경보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한 것은 오경보가 죽기 전의 일로, 꿈을 꾸 이후 얼마 있다가 오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오경보가 귀양 가게 될 당시 글쓴이는 설성에, 이윤지는 단양에 있으므로 송별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적소의 일을 알려 온 오경보의 편

지를 보고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라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오경보가 두보의 전·후 「출세」 시를 서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써서 부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였다. ⑤ 글쓴이는 오경보의 낮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여 초혼사를 지내려 했다.

- 3 꿈속에서 ‘가운뎃배를 막지 말’라는 글쓴이의 제안에 이윤지는 찬성을 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경보의 낮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여 초혼사를 지으려 했지만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깨어나 생각해 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④, ⑤ 글쓴이는 경보의 혼이 남쪽에 있는 자신의 꿈에 나타난 것을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5 이 글의 글쓴이는 오경보의 생전에 해 주지 못한 일들을 나열하며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대상인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낼 뿐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오경보의 죽음에, <보기>는 누이의 죽음에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한 가지에 뉘지만 가는 곳 모르고 떨어지는 잎, 즉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이 글의 글쓴이는 꿈속에서 오경보를 만나고 있다. ⑤ <보기>의 화자는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라고 하여 재회를 기약하며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한편 이 글의 글쓴이는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6 글쓴이는 오경보에게 해 주지 못한 것 등을 나열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의 근심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상소로 인해 영조의 미움을 산 오경보가 귀양을 가게 된 것이므로 귀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오경보에게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충신이 되라는’ 충고를 담은 편지를 보낸 일로 인해 글쓴이는 그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글쓴이가 오경보의 혼이 객지를 떠돌까 봐 걱정하는 이유는 그가 북쪽 유배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④ 꿈에서 당실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한다는 것을 ‘혼백이 오고 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은, 오경보의 혼백도 유배지에 머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찰밥

본문 172~17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현학적인 한자어는 구사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 수필의 전통을 갖고 있지도 않다.
- 07 대상과의 일화는 제시되어 있으나, 주제를 다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11 글쓴이는 견대조차 만들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으로 찰밥을 책보에 썼다.
- 15 글쓴이의 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시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③ 4 ① 5 ③ 6 ② 7 과거의 ‘찰밥’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고, 현재의 ‘찰밥’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 1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는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어머니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 구절이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어린 시절 원숙 때 찰밥을 싸 준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스스로를 ‘나’ 외에도 ‘그 아들’, ‘사나이’ 등과 같이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머니가 찰밥을 싸 주시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찰밥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2 글쓴이는 어머니가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찰밥은 그와 관련된 소재가 아니라, 글쓴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련된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④ 찰밥은 글쓴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재로, 글쓴이는 어린 시절 찰밥을 통해 격려와 위안 등을 얻었다. 이후 글쓴이는 현재 찰밥을 통해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 3 ㉠은 어머니의 환영을 본 모습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환영이 사라지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어머니가 글쓴이에게 한 정성 어린 행동의 이면에 담긴 가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어머니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읽은 글쓴이의 자부심이 드러난 구절이다. ④ ㉠은 글쓴이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은 글쓴이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구절이다.

- 4 글쓴이는 50이라는 숫자를 통해 현재의 나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의 지향점과는 관련이 없다. ③ 상황 전환과는 관련이 없다. ④ 추억을 상기시키는 것은 찰밥이다. ⑤ 교훈적 의미와 나이 언급과는 무관하다.

- 5 이 글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길게 늘이는 것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한자어보다는 일상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어머니가 찰밥을 준비하는 부분은 치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추억과 현재 처지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직설적이고 직감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6 가난한 살림에서도 원족을 가는 아들을 위해 찰밥을 싸 주시는 모습을 통해 글쓴이의 어머니가 글쓴이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자모지심(慈母之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③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⑤ 남에게 입은 은혜가 배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04 임계탄

본문 178~18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05 화자는 ‘슬프다’, ‘싫다’ 등 직접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09 이 글에 현학적인 문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구어체적 문체인 것은 아니다.

11 글쓴이의 태도나 진솔성의 모습으로 볼 때 기민들이 먹고사는 일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④ 4 ⑤ 5 ⑤ 6 ㉠ 협애, ㉡ 구미수 7 관리들이 흉년에 구휼에 힘쓰는 대신 호적을 정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1 학정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만, 이를 다른 대상에게 폭로하고 있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을 ‘취’와 ‘거북’으로 빗대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풍자적 수법은 화자의 주관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② 진솔성의 다양한 부패상과 무능한 관리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 ③ 포악한 학정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자는 ‘슬프다’, ‘싫다’, ‘참혹하다’와 같이 자신의 심정을 언급하고 있다. ⑤ ‘이 살세 살아나서 이 낙세 불동말동’에 대비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다.

2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인, ‘두승’, ‘소령감’, ‘관민들’은 구휼미를 쫓는 것이 ‘공각’으로 주거나 ‘관홍량’을 ‘협애’하게 바꾸거나, ‘무실존명’하거나, ‘구미수’를 꾸미는 등의 부패를 저질렀으나, 흉년임에도 풍년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다.

3 ㉠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을 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과장적인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정확한 한[尺]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공수자를 인용하여, 두승을 비판하고 있다. ② 부정한 관리들 ‘취의 모습’이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③ ㉠의 ‘야포 월시’한 모습은 백성의 모습이고, ‘사회재 도모한다’는 이러한 모습에도 개의치 않고 백성을 수탈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⑤ ㉠은 피 눈물, 불타는 가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식을 잃은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4 흉년임에도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반성이 아니라 부정한 모습이다.

오답 해설 ① 진솔은 재해로 인해 먹을것이 없는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곡식이라는 점에서 진솔성의 판단에 앞서 어떤 재해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② ‘이번의 타낸 걸랑 공각으로 의포하에’, ‘엇그제 관홍량이 간탈코 협애하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진왕의 성을 얻어’는 진시황제와 같은 세도를 부린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④ ‘무상하다 시절이여’, ‘인명이 철석인들 이려고 보전하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5 이 글에는 재해의 구체적인 모습 즉 ‘황모’로 인한 ‘백홍’이 드러나지만, <보기>는 어떤 재해로 인해 ‘재 한 짐 못 먹’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다양한 중국 고사를 인용해 학정을 고발하고 있다. ② <보기>는 탐관오리인 이재가를 언급하고 있다. ③ 이 글은 ‘두승’, ‘소령감’ 등을 언급하여 이들의 부정을 언급하고 있고, <보기>는 ‘사신님’에게 거창 지방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신호적 무슨 일고’, <보기>의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 얘기며 작은 얘기’는 모두 실제 인물이 아니라 호적에만 이름을 올리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

05 준비자설

본문 185~191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나’의 주장과 어떤 남자의 주장이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08 글쓴이인 ‘나’는 처음에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린 글쓴이를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어떤 남자의 말을 듣고는 그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강압적인 징병 정책으로 인해 병사들이 도망을 가거나 죽어도 그 부담은 그대로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13 병역의 가혹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서 승려가 되었는데, 이는 승려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③ 4 가혹한 병역을 비판하고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5 ④ 6 ②

1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부모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면 ~ 동쪽 집에서 징병합니다.’에서 반복적 표현을 활용하여 징병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어떤 남자가 주고 받은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④ 왕상과 치료의 고사를 활용하여 병사가 될 경우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남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혹한 병역으로 인해 어떤 남자의 형제에게 일어난 일들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어떤 남자’는 가혹한 군역으로 인해 부모와 일족, 심지어 이웃까지 위협을 받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

오답 해설 ① ‘어떤 남자’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린 행위를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큰 불효에 비해 작은 불효라고 생각한다. ② ‘어떤 남자’가 징병을 피하기 위해 팔을 부러뜨렸지만, ‘나’가 그러함에도 징병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어떤 남자’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부러뜨린 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있다. ⑤ ‘어떤 남자’는 자신이 병사가 된다면 왕상과 치료와 같이 효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나’가 ‘어떤 남자’를 질책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떤 남자’의 말에 점점 공감하고 있다.

3 ㉠은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며,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행하는 절도사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자는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남자’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린 것이다. ② ‘나’에게 있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은 인자상정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④ 병역의 어려움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것으로 당시에는 승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없었다. ⑤ ‘어떤 남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작은 불효라고 생각한다.

4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글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드러나 있다.

5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징병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탕하게 향락에 빠진 관리들의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없다.

- 6 ㉑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지녀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관료이지만, ㉒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관료이다.

오답 해설 ① 현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은 ㉑가 아니라 ㉒이다. ③ 백성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은 ㉑가 아니라 ㉒이다. ④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려 하는 것은 ㉑가 아니라 ㉒이다. ⑤ 자신이 목민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㉒이다.

06 새장 속의 학

본문 192~19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3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확인할 수 없다.
- 04 색채어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 06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10 화자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④ 4 ④ 5 ④ 6 여원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서 있음,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함. 7 이 글의 '새장'과 <보기>의 '흐르는 물'은 모두 화자를 단절, 고립시키는 존재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이 글의 '새장'은 화자를 속박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곳인 반면, <보기>의 '흐르는 물'은 속세와 단절하고 싶어 하는 화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 1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처지를 새장 속에 갇힌 학에 비유하고 있다. ② '달 밝은데, 여원 그림자, 깃털 긴 날개'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술이 떠들썩', '술픈 울음'에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③ 마지막 행의 '옛 언덕'에 대한 감정을 '술픈 울음'을 운다며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곤륜산', '청전', '구령' 등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유사한 공간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2 자유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곤륜산, 청전, 구령' 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는 몸'으로 해마다 술픈 울음을 울면서 지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병들고 외로운 자신과 달리 신이 나 떠들썩한 '까마귀 떼'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 3 <보기>는 초장에서 봄을 나타내는 '이화우(梨花雨)'가, 중장에서 가을을 나타내는 '추풍낙엽(秋風落葉)'이 드러나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글에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곤륜산', '청전', '구령'이, <보기>에는 '임'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짝도 없이 홀로' 지내는 처지이고, <보기>의 화자 역시 '외로운 꿈'이라고 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이화우(梨花雨)'와 '추풍낙엽(秋風落葉)'을 통해 각각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여원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신이 난 '까마귀 떼'와 대비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 '저녁 까마귀 떼'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새장'이 현재 화자가 갇혀 있는 공간이라면 '곤륜산'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과거 자유로웠던 공간으로, 둘은 서로 대조되는 공간이다. ② 날이 저물고 끊어진 창공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짝도 없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킨다. ⑤ 화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는 '곤륜산', '청전', '구령' 등으로 나타나며 마지막 행에 '옛 언덕'으로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다.

- 5 화자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화자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새장에 갇힌 처지에 있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곤륜산을 그리워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② '창공은 끊어지고', '꿈길만 고달프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짝도 없이 홀로 서 있는' 화자와 신이 난 '까마귀 떼'의 대비를 통해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술픈 울음'을 우는 화자와 '떠들썩'한 '까마귀 떼'가 대조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비되고 있다.

07 선상탄

본문 198~20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3 고사를 인용하여 적을 향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06 무인으로서 왜적을 이기고자 하는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 08 반어적인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 09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찾아볼 수 없다.
- 10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 11 화자는 스스로를 병들고 약하다고 인식했으나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3 ㉠은 자신을 약한 존재로 겸손하게 표현하였기에 13과 14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에서는 왜적을 쥐와 개에 비유하며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고, ㉢과 ㉣에는 태평한 시절에 어주에서 노래하며 한가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③ 3 ② 4 파도 없는 바다 5 ① 6 ⑤ 7 (1) '그러나'는 사상을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2) 조그마한 몸이 병중에 들어 힘겨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를 기점으로 사상이 전환되면서 적을 향한 적개심과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다. 8 왜적을 향한 비하의 의도를 담아 화자의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 1 제갈 공명이나 손빈 등의 고사를 활용하여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지니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른 인물과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이상적 세계가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 않다. ④ 특정 구절의 반복은 찾아볼 수 없다. ⑥ 점층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2 무인으로서 왜적을 물리치고자 하며 우국충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란을 겪고 있는 중이지 전쟁의 후유증을 겪는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간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태평성대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 당쟁을 일삼는 속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3 이 글의 '전선'은 전쟁 중 타는 배를 의미하며, 전쟁은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인 화자의 시름을 불러일으킨다. <보기>의 '배'는 가을날 낚시를 나갔다가 세속적 욕심이 없는 무심한 달빛만 싣고 오는 대상으로서, 화자의 욕심 없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선'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③ <보기>의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전선'은 힘겨운 상황과 관련되므로 이상적인 삶이라 할 수 없다. ⑤ 가을이라는 계절에 여유롭게 노니는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보기>의 '배'이다.

- 5 ㉠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손빈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적을 물리치는 상황을 '낙엽같이 헤치리라'라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항복만 한다면 '너(오랑캐)'를 죽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④ '노래'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한가롭게 배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노라'라는 영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6 ㉠에서 약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몸이 약하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의 모습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이 ㉡에서는 수족과 목숨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인식되어 오랑캐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② ㉠에 대한 인식은 화자의 자신감을 불러오며, '오랑캐들이 어서 항복하려구나'라는 명령의 태도로 그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다. ③ 칠종칠금은 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화자의 상태와 칠종칠금의 과업이 '-으니'라는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기에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④ ㉡를 회유하고 항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기에, 이는 ㉡가 누리는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08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

본문 204~21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화룡굴의 절경을 묘사할 때 중국의 '방장산'이 언급되고 있으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06 설생의 삶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오윤겸과 설생의 대화도 제시되어 있다.
- 09 오윤겸과 설생은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을 계기로 윤리와 기강이 사라진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꼈다.
- 11 오윤겸은 함께 속세를 떠나자는 설생의 권유를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멀리 갈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부모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아니다.
- 13 오윤겸은 설생의 거처인 화룡굴의 신비롭고 웅장하며 기이한 풍경에 감탄하였다.
- 15 오윤겸은 이상 세계에 살고 있는 설생의 삶을 대하고는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이 추하다고 생각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⑤ 5 ④ 6 인목 대비 폐비 사건 7 오윤겸은 현실과 타협하는 속세의 삶을 살지만, 설생은 속세를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탈속의 삶을 살고 있다.

- 1 역사적 사건인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속세의 인물인 오윤겸과 탈속의 인물인 설생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③ 설생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실화적 결말을 통해 이야기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한양→영랑호→화룡굴→한양→화룡굴'로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오윤겸을 만난 설생은 자신의 지난 내력을 요약하여 알려 주고 있다.

- 2 설생은 벼슬을 추천하는 오윤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지만, 오윤겸이 다시 찾은 화룡굴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오윤겸도 설생과 마찬가지로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꼈지만 부모를 봉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벼슬길을 택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③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은 "윤리와 기강이 무너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하겠나?"라며 유람을 떠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설생은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난 당시를 세상이 어지러워 온통 지내야 하는 시기로 생각했으며, 속세에서 떠나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의 행적으로 보아 도를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인조반정 이후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되었으며, 삼 년 뒤 전조를 잡고 있던 시기에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던 시기는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킨 시기로 볼 수 있다. ⑤ '벼슬을 했어도 관찮았을 것'이라는 논평은 설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출세를 지향했던 오윤겸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도 볼 수 있다.

- 4 휴가를 얻어 설생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간 화룡굴이 폐허가 된 모습을 마주한 오윤겸은 설생의 기이한 행적에 크게 탄식하고 애석해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오윤겸과 설생은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을 계기로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②, ③ ㉡에서 설생의 거처인 화룡굴의 기이함과 웅장함,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목격한 오윤겸은 화룡굴의 모습에 '황홀하여 자기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하게 느껴졌다.' ④ ㉢에서 오윤겸이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한 것은 은자로서의 설생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설생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버린 것이다.

5 ㉤은 화룡굴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공간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문장이 풍부하고 기개와 절개를 숭상했다'라며 설생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오윤겸은 윤리와 기강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벼슬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설생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부모님을 봉양해야 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③ 관찰사가 된 오윤겸이 지역을 순시하다가 설생을 만난 것은 필연성이 없는 우연한 만남에 해당한다. ⑤ '정말 마땅히 은자가 지낼 만'하다는 말에는 은자로서 설생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09 문천요

본문 211~21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꿈속에서 신선들은 화자를 꺼리거나 꾸짖고 있다.
- 03** 역설적 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 05** 대화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07**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지만, 명령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 08**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직접 지칭하여 근심의 원인을 부각하지 않았다.
- 10** 자연물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았다.
- 12** 화자는 속세와 떨어진 후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만족감을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3** 화자는 꿈에서 자신의 이상을 이루지 못했으며, 현실의 좌절을 보상받지도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③ 4 ① 5 ④ 6 ④ 7 어즈버 8 화자는 꿈을 통해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옥황상제를 만나려 했다.

1 화자는 백옥루 증수에 대해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고 싶었지만 다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신선들의 태도에 실망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분수임을 깨닫는다. ② 옥황상제는 화자를 반기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미소만 짓고 있다. ③ 화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옥황상제에게 전하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난다. ⑤ 화자는 하늘을 고친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온다.

2 대규모 표현을 통해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상반된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영탄법의 사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꿈속 공간을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결합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3 화자는 신선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백성들의 고통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모습은 각각 임금과 신하들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작가가 처한 정치적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② 꿈속의 십이루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현실 속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꿈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작가의 정치적 이상이 현실에서 좌절되었음을 상징한다. ⑤ 작가는 긴 은거 후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시기하고 험담하는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을 담아 노래했다.

4 화자는 꿈속에서 옥황상제를 만나 백성들의 고통을 전하려 하지만, 신선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꿈속 공간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과 좌절을 드러내며 현실 정치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③ 화자는 사건의 원인을 신선들의 방해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를 자신만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5 화자가 꿈속에서 옥황상제를 만나 백성들의 고통을 전하려 하지만, 신선들의 방해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은 꿈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꿈속에서 신선들의 냉대를 경험한 화자는 자연 속 삶을 선택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② 꿈속의 옥황상제와 신선들의 모습은 화자가 현실에서 겪은 정치적 갈등과 내면의 좌절감을 형상화한다. ③ 화자는 꿈속에서 백옥경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게 된다. ⑤ 화자는 꿈속에서 옥황상제에게 뜻을 전하려 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욕망의 한계를 경험한다.

6 ㉤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있는 것이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② 정치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화자의 다짐을 드러낸다. ③ 백성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⑤ 소망이 좌절된 화자의 무력감과 현실 정치의 한계를 암시한다.

10 구운몽

본문 217~224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주인공이 입신양명을 이루고 세속적인 가치들을 성취한 공간은 꿈속 세계이다.

03 양소유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05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지 않다.

08 서술의 초점은 주인공인 양소유에게 맞추어져 있다.

11 양 원수는 세속적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13 용왕의 초대를 받은 양 원수는 처음에 주저하였으나 결국 용녀와 함께 동정호로 갔다.

16 노승은 대원수가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다.

17 양 원수는 어떤 노승을 만났다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노승이 육관 대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④ 4 ② 5 ⑤ 6 ⑥은 양 원수가 훗날 성전의 모습으로 절에 복귀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⑥은 양 원수가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한다.

1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심리와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며(ㄴ), 주인공인 양소유가 꿈속, 용궁 등의 비현실적 공간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 있다(ㄷ).

오답 해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ㄱ). 액자 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제시된 부분은 꿈속 이야기(내화)에 해당하며 내화와 외화의 서술자를 달리하여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ㄹ). 서술자의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마).

2 ‘전당군파진약’은 과거 어느 유생이 경하왕으로부터 용왕의 만팔을 구해 왔을 때 궁중 사람 하나가 만든 것이라고 했으므로 새로운 곡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원수는 남해 태자 집안의 공로를 인정해 남해 태자를 특별히 용서해 주었다. ② 용왕의 초대를 받은 양 원수는 용녀와 함께 동정호로 갔다. ④ 원수가 병든 군사들에게 백룡담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게 하자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⑤ 원수가 장수들에게 꿈에 대해 묻자 장수들은 일제히 자신들도 꿈을 꾸었다고 대답했다.

3 꿈 속에서 양 원수가 신선이 되어 도를 닦지도 않았고, 도를 닦는 장면은 불교의 공 사상이 아니라 도교와 관련되므로 ④와 같은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초인적 능력을 가진 양 원수의 영웅성은 <보기>의 ‘영웅의 일대기 형식’과 관련된다. ② 양 원수가 용왕의 딸과 훗날을 약속하는 장면은 <보기>의 ‘전쟁보다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는 특징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③ 양 원수가 꿈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은 <보기>의 ‘불법의 진리를 깨닫는 환몽 구조’와 관련된다. ⑤ 남해 태자를 꾸짖을 때 내세운 천자의 명령은 유교적 명분과, 남해 태자를 용서하는 것은 불교의 자비로움과 관련된다.

4 양 원수는 꿈속에서 남악 형산이라는 이상 세계를 경험하고 잠시나마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이루며, <보기>의 화자는 꿈을 통해 그리워하던 임을 만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꿈속에서 양 원수가 불교에 귀의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보기>에서 화자는 꿈을 통해 그리운 임을 만나지만 닭 소리에 잠을 깨어 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③ 꿈속에서 양 원수는 잠시나마 속세의 번뇌와 괴로움을 잊지만, <보기>의 화자는 꿈에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④ 꿈속에서 양 원수가 과

거의 잘못을 깨닫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의 화자가 꿈을 통해 임과의 미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⑤ 꿈속에서 양 원수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을 찾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의 화자가 꿈을 통해 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도 않다.

5 ⑥은 양 원수의 능력과 효험을 보여 주는 것이지 신성한 존재가 돕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①은 전투의 참혹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양 원수의 압도적인 승리를 강조한다. ② ②은 신비롭고 웅장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양 원수가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③ ③은 양 원수가 형상을 방문하여 여유롭게 명승지를 구경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④ ④은 양 원수가 전쟁과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초탈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11 화전기

본문 225~231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여인들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04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5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09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10 ‘소동파’나 ‘이백’과의 대비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힘겹게 걸어가 명승지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공간의 이동을 통한 시상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 5 ③ 6 ④ 7 ② 8 규중 안에만 머물렀던 화자가 ⑦의 시간을 가지며 그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움과 해방감을 얻고 있다.

1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 곳에 ~하고, ~ 곳에 ~하다’ 등에서 대구법을 찾아볼 수 있다. ③ ‘황앵’, ‘복성꽃’ 등 봄을 드러내는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 ④ 소선, 이백 등의 인물과 대비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자연 경관에 감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일자를 정차 하니 길일양사(吉日良事) 언제런고 / 이월이라 염오일(念五日)은 청명시절(淸明時節) 제때로다’ 등에서 문답법을 찾아볼 수 있다.

2 ‘장장춘일(長長春日)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라는 구절에서 시간이 가는 줄 잊고 오랜 시간을 즐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뿐, 화자가 과거 시험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② 화전놀이를 떠날 날을 택일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③ ‘노소없이 다 모이어’에서 젊은이와 나이가 든 사람 모두가 모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날아다니는 황앵을 바라보며 묘사하고는 있으나 자신을 황앵이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보기>에서는 화전놀이를 하러 나왔으나 비참함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이 글에서는 규중에서만 지내던 화자가 화전놀이를 나와 해방감을 느끼며 위안을 얻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도 ‘꽃’ 등 자연물이 언급되고 있으나 화자는 흥겨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② 이 글에도 ‘어와’라는 감탄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이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이 글과 <보기>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⑤ <보기>의 ‘~나니 족족 ~이요, ~나니 족족~일세’에서 대구법을 찾아볼 수 있다.

- 5 ③에는 자연 속 흥취를 즐기는 풍류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봄밤에 그리운 입을 향한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임(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드러내고 있다. ④ ‘굳은 술’을 활용하여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부재중인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6 ‘인간의 자연취객’은 자연 속에 취해 있는 나그네로서 화전놀이를 마치는 것이 아쉬운 상황에서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백’은 자신과 비교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언급된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두 대상 모두 화자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② ‘이백’도, ‘자연취객’도 현재 화자가 실제로 바라보는 인물이 아니다. ③ 두 대상 모두 화자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⑤ ‘이백’은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인물일 뿐, 화자의 삶을 반성하게 하지 않는다.

- 7 ‘원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는 화전놀이를 가기 위해 단장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12 의유당관복유람일기

본문 232~23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 04 자연물과의 물아일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 07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삶의 교훈을 얻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 08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된 부분은 있으나, 세태를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 09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 11 돌아올 때에 가마 앞에 풍악을 늘어 세워 연주하게 하였다.
- 12 군영의 대장이 야간 행차에 비단 초룡을 켜도 이보다 훌륭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 14 여성인 글쓴이의 모습을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이 돌아오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 15 관아에 들어오고 초룡불은 모두 졌다.

- 19 달빛이 환한 밤에 무검루에 올랐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④ 4 ③ 5 ⑤ 6 ③ 7 ⑦는 설의법이 사용된 표현으로 비단 초룡을 켜고 야간 행차를 하는 군영의 대장도 이것보다 훌륭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1 북산루와 무검루의 모습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긴박한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수필이다.

- 2 글쓴이는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무검루의 광경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스스로 우쭐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기생들에게 뽐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글쓴이는 방 안에 들어와 부녀자로서의 자신을 깨닫고 박수를 치며 웃는다. ④ 글쓴이는 새로 지어진 북산루가 굉장하다고 평가하였을 뿐, 불에 탄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누각에 오르려는 글쓴이를 책망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3 ㉠은 서쪽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광경으로, 글쓴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다. 반면 ㉡은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을 뿐 직접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과 ㉡의 대상들이 지나는 심리는 알 수 없다. ② ㉠과 ㉡ 모두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③ ㉠은 글쓴이의 행차에 비교한 것일 뿐 글쓴이에게 절망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 역시 신기한 광경으로 보고 있을 뿐 절망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④ ㉡의 화려한 행차를 신기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 4 ③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온 장군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④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⑤ 과거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

- 5 ‘누각 안에 들어가’고 ‘즐비한 민가를 보’는 등의 체험을 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설렘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사초롱 수십 쌍’과 ‘풍악 소리’ 등은 야간 행차에서 글쓴이가 직접 겪은 것으로,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서문루 누각 안에 들어가’ 눈을 들어 살펴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을 보고 감상하고 있다. ③ ‘붉은’과 ‘푸른’이라는 색채의 대비, ‘그림자’는 명암의 대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보고 ‘그런 장관이 없었다’고 감탄하고 있다. ④ ‘시월’과 ‘서리’는 가을이라는 계절과 관련된 단어이고, 신묘년 시월 보름날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 원님께 허락을 청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그날의 상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6 <보기>에서는 다른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글쓴이가 여정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기생들이 그 풍경의 거룩함을 거듭 칭하기에, 이 글에서는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기에 여정을 떠나고자 하였다고 계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보기>에는 길을 떠나는 데 구름이 사면으로 운집해 있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이 글에는 청사초롱 수십 쌍을 든 기생이나, 누각 위에서 민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이 묘사되어 있다. ④ 〈보기〉에는 추위가 오래되어 땅이 질어 말 밭이 빠지는 등 여정의 힘겨움이 제시되어 있다. ⑤ 이 글에는 ‘군공을 세우고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 소리가 내 호기를 돋는 듯’ 등의 비유적 표현이 나열되고 있다.

13 병에서 일어난 후

본문 238~24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화자는 자신의 삶이 신선과도 같은 삶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이를 긍정하고 있지는 않다.
- 08 이 작품의 자연이 화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13 화자는 신선과 같은 삶을 원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18 화자가 다른 이들과 시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③ 4 ③ 5 ② 6 ⑤ 7 ㉠ 바느질 ㉡ 거울

- 1 이 글에는 문학 작품 창작이라는 ‘시를 쓰며’라는 구절과 여성의 삶이라는 ‘바느질’이라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것만으로 주체적인 여성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7~8행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에 자연의 변화를, 이를 통해 흔들리는 화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통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거울’을 통해 파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② 화자는 삶의 절반을 시 쓰는 데 몰두했다. ③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3 ‘상자 속의 시구절’은 화자가 지은 시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으로 화자는 다른 사람과 시를 나누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병을 알고 이 글을 지었다. ②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매지 않은 배’에 빗대어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그동안 자신의 삶을 간추려 보고 있다. ⑤ 화자는 스스로의 삶을 ‘시를 쓰고’ 바느질 하는 삶으로 요약하고 있다.
- 4 화자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바느질’과 ‘시’를 떠올리는데, 〈보기〉에 따르면 ‘시’는 작가의 작품의 주된 주제로서, 이 작품은 창작에의 열정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봄 풍경이 허무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긍정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화자는 시를 짓는 이가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⑤ 창작의 목구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병으로 시를 짓지 못했는지도 알 수 없다.

- 5 화자는 순환적 계절에 느끼는 무상감, 흔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봄을 기쁨의 계절로 여기고 있지 않다. ③ 화자는 봄을 새로운 시작의 긍정적 속성을 지닌 계절로 여기고 있지 않다. ④ 화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배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6 이 글의 화자는 창작에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시름없는 모습 속에서 연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화자 개인이 느끼는 회한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 ② 〈보기〉에 제시된 봄의 모습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배경이다. ③ 이 글에서는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 〈보기〉에서는 ‘봄추위가 스며드는데’를 통해 각각 봄이 끝나가는 시점과 봄이 막 시작되는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계절을 통해 촉발된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14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본문 244~24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04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 05 ‘달옹배기, 복덕불, 나뭇손, 쇠’ 등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10 ‘나’는 어느 목수의 집에 세를 얻어 쓸쓸하게 지낸다.
- 13 ‘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
- 14 ‘나’는 곧고 정한 갈매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⑤ 4 ④ 5 ④ 6 ④ 7 ⑤ 8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 1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며 비애감을 느끼다가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갈매나무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에서는 화자의 외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뒤에서는 화자의 내면의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② 이 글은 독백체의 어조로 화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산문시이나, 행간이와 침표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달옹배기’, ‘복덕불’, ‘나뭇손’, ‘쇠’ 등의 평안도 방언을 통해 토속성과 향토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2 이 글에서는 화자가 목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목수 집에 오게 된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9~15행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썰랑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곧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달옹배기’, ‘북덕불’, ‘나쫄손’, ‘썩’ 등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을 통해 향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상황만 드러날 뿐, 풍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④ 도치법과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글의 ‘더 크고, 높은 것’은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 즉 운명을 의미하므로 이 글의 화자가 자신을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천을 볼’인 방은 화자가 세를 들게 된 방으로, 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그러한 방’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보여 준다. ② ‘문 밖에 나가디두’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싸김질’하는 것은 방 안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새기는 모습으로, 방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보여 준다. ③ 방에서 지난 삶을 성찰하던 화자는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고 표현하며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지세를 함축한 대상으로,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는 것은 굳고 정결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5 자신을 이끌어 가는 크고 높은 것이 있음을 깨달은 화자는 이제 절망과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완성하려고 한다. 즉,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6 이 시의 화자는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주어진 운명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올바르게 살아가자 한다.

오답 해설 ①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를 통해 과거에 느낀 감정들이 진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⑤ 화자는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떠올리며, 운명의 존재를 깨닫고 있다.

7 화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8 ㉠과 <보기>에서는 화자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15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본문 250~25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04 ‘시퍼런’, ‘초록’, ‘금빛’의 색채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05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06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만, 이를 달관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⑤ 4 ④ 5 ⑤ 6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시구는 ‘임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 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이다. 이 시구들은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를 쓰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을 잘 보여 준다. 화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

1 ‘과일을 나눠 주는 시’ 등의 표현에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봄기운’과 같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의 소망에 반하는 현실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인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복가시나무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청유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다.

2 3연에서 화자는 원치 않는 이념과 구호들 때문에 힘겨워하며 소리 죽여 울고 있다. 화자는 이념과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으며 그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옛장수’는 이념을 강요하는 세력이고, ‘가위질’은 그런 세력에 의한 폭력적 행위를 뜻하며, ‘흙집투성이 몸통’은 옛장수의 가위질로 인해 상처 받은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② 2연의 ‘허공’은 상처 입은 화자가 잡식나무 자신을 위로하는 공간이고, 화자는 이곳에서 이념의 강요가 없는 순수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④ 4연에서 화자는 ‘낮’과 ‘툼니’로 상징되는 부정적 세력에 ‘실발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겠다고 하며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임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 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쓰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열거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 4연에서 화자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며 언젠가 풍요롭고 순수한 영혼의 결실로서의 시를 쓸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저귀지 않’는 고독한 상황일지라도 자신만의 시를 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옛장수들이 가위질’하는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복가시나무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 홀로 남겨져 상처 입고 훼손된 화자의 내면을 나타낸다. ③ 깃발과 플래카드는 군사 정권이 이념을 강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여 영혼의 순수성을 지켜 내어 거두게 될 결실을 의미하며, 화자는 언젠가 자신도 그러한 시를 쓰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4 화자는 ‘허공은 나의 나라’라고 하면서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 내 앙상한 몸통에 패달려 나부끼는 소리’가 들리는 ㉡은 사회가 강요하는 이념과 구호에 의해 화자가 억압당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은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라 사회적 억압과 이념의 횡포가 가해지는 공간이다. ②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는 ㉢은 사회의 통제를 받는 곳이 아니라 화자가 꿈꾸는 자유의 세계이다. ③ ㉣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이지 화자가 속해야 할 공동체의 공간이 아니다. ⑤ ㉤은 상처 입은 화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위로를 받는 공간으로 ㉠과 대조된다.

5 이 글에서는 ‘복가시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는 영화 상영 전 애국가 제창이라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군부 독재 시절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는 저항 의지가 나타나 있지만, <보기>는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② 이 글의 화자는 순수성이 담긴 시를 썼다는 다짐을 노래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낼 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화자는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사회적 행동을 촉구하기보다는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은 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기>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6 수오재기

본문 256~26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지만, 독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수오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글쓴이가 품은 의문에 해당한다.
- 07 글쓴이는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수오재’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글쓴이의 모습을 볼 때 귀양으로 인해 ‘나’를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고 추리하기는 어렵다.
- 09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라는 부분에서 둘째 형님이 ‘나’를 잃은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과거 공부하는 ‘나’를 지킨 수단이 아니라 ‘나’를 잃었던 과거의 모습이다.
- 14 글쓴이는 ‘나’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을 수 없기에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⑤ 4 ④ 5 ④ 6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7 (1)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온 ‘나’ / 환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변하는 자 (2)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 /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

- 1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는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 오답 해설 ② ‘내 발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하였으니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어찌 실과 끈으로 ~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 돌아가지 않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나’와 둘째 형님은 벼슬길에 나아간 후 ‘나’를 잃었다가 귀양 후 본래적 자아인 ‘나’를 되찾았다.
- 오답 해설 ① 벼슬을 하면서 의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귀양지에 유배 와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② ‘나’는 과거에 과거 시형, 벼슬 등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④ 집, 밭, 책, 옷 등은 ‘나’의 곁에 있거나 전부 없

기 힘든 것이므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⑤ 큰형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잃은 적이 없었다.

- 3 글쓴이가 ‘자네’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관념적인 대상인 ‘나(吾)’이다. 이는 관념적인 대상을 실재하는 존재로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吾)’를 찾아가는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성현의 경전을 관념적 대상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현의 경전은 모순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② ‘자신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관념적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 부족함 없는 자신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③ ‘채화’가 ‘컵’을 준다는 표현으로 ‘채화’를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컵’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주체는 ‘채화’이지 글쓴이인 ‘나’가 아니다. ④ ‘나(吾)’라는 관념적 대상을 개별적 대상으로 드러낸 것은 맞지만, 이는 글쓴이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나(吾)’를 찾고 느낀 벅찬 감정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 4 ④의 큰형님은 ‘나’를 잃지 않았는데, 이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과거에 빠진 지 10년이 지나고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갔다고 했으므로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정에 나아간 이후 다시 처지가 바뀌었다고 했으므로 벼슬살이의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친척과 문묘를 버리고 멈추었다고 했으므로 귀양살이의 처지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수오재’에 대해 자신이 말한 바는 결국 자신이 깨달은 수오재의 의미이다. 이를 큰형님께 보이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하였다.

- 5 ‘장기’는 유배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귀양지인 ‘장기’가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유배지인 ‘장기’에서 본질적 자아인 ‘나(吾)’가 무엇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③ 글쓴이는 ‘장기’로 가기 전 자신의 모습을 ‘나(吾)’를 잃은 삶이라고 했다. 이는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이다. ⑤ ‘장기’는 실존하는 공간으로서 글쓴이의 유배지이다.

17 경사

본문 262~26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유자남’과 ‘굴나무’는 자연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자의 삶의 여유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 07 ‘가쁜한 신발’은 화자의 삶이 젊은 시절의 삶의 무게와 부담에서 벗어나 한층 여유 있고 가벼워진 상태임을 나타낸다.
- 09 화자는 노년으로 가는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④ 4 ③ 5 ③ 6 설레는 구름과 바람 7 ‘바다로 기운 길’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삶의 흐름을 상징한다. 이때 ‘길’은 삶의 흐름을, ‘바다’는 삶의 종착지를 의미한다. 화자는 ‘바다로 기운 길’이 자연의 이치에 따른 길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1 수미상관의 구조는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거나 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 글의 경우 1연과 4연에서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을 반복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이를 수미상관의 구조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에서 대구법이 나타나며, 1연과 4연에서 반복되고 있다. ② ‘자갈이 빛났다’, ‘젖은 구두’, ‘발바닥에 느껴지는 경사감’ 등에서 시각적, 촉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③ ‘건조한 가을 길’은 계절감을 환기하며 노년기로 접어드는 화자의 상황을 암시한다. ④ 2~4연을 각각 ‘경사감’, ‘거리감’, ‘나의 신발’과 같이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함으로써 시상을 집약하고 여운을 느끼게 한다.

2 이 글의 화자는 ‘바다로 기운’ 길을 걸어 노년기를 향해 늙어 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길을 ‘지순한 길’이라고 표현하며 그 길에서 ‘가쁜한 신발’을 신고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끼며 걷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노년기에 이른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삶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의 굳센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무게감이 드러나 있지만 그에 대한 회한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지만 반성적 성찰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설레는 구름과 바람’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3 ‘설레는 구름과 바람’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소박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 글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현재 삶을 담담히 수용하고 있을 뿐, 젊을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이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건조한 가을 길’은 화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황혼기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겨우’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년을 맞은 화자가 치열하게 보낸 젊음의 한 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당연한 길’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연의 섭리나 삶의 이치를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경사감을 신비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화자가 나이가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의 화자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 굴이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소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유자나무에 ~ 열리는’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보기〉에서는 ‘~ 살아라 한다’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느낄 수 있다. ② 이 글의 ‘설레는 구름과 바람’에서는 ‘구름과 바람’에, 〈보기〉에서는 ‘산’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자연의 질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⑤ 이 글의 화자는 나이 들어 가는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서 구름이나 바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므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5 ‘자갈이 빛나는 길’은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으로, 화자의 삶에서 빛어지는 소소한 일상의 사건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빛나는’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역경과 고난이 펼쳐진 삶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으로 보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노년기를 향해 가는 화자의 삶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겨울나무를 보며

본문 268~27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7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8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 정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① **4** ④ **5** ④ **6** ‘탕’은 옷을 벗어야 하는 곳으로, ‘시원하게 버릴 것을 벗어 버린 겨울나무의 이미지와 연관성을 갖게 함으로써 젊은 날의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화자의 현재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이 시에서 화자는 ‘겨울나무’와 조응하고 있다. 화자는 ‘스물 안팎 때’의 것들을 떨구어 냄으로써 양상하긴 하지만 홀가분함한 겨울나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어조가 변하고 있지 않다. ③ ‘손을 흔들며 /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 등을 통해 의인화는 확인할 수 있으나, 고독감을 나타내기 위해 의인화를 한 것은 아니다. ⑤ 1연과 2연의 대비를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화자는 비로소 잎사귀들을 떨어낸 겨울나무처럼 벗을 것을 벗어 버린 일을 ‘시원하게’라고 표현하면서 ‘겨울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 중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2연과 3연에서 중년 시절을 맞이하는 화자의 태도로 보아 젊음이 끝난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마흔 무렵의 삶에서 초라함을 느끼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② 젊은 시절에 막연히 추구했던 것들로 인해 느꼈던 혼란과 방황을 회상하고는 있으나 젊은 시절에 느꼈던 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 전체에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3 ‘숨 가쁜 나무’는 혼돈과 방황을 경험했던 스물 안팎의 젊은 날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화자가 그러한 과거를 참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스물 안팎 때’는 젊은 날을,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는 중년이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시구를 대조하여 나이가 들어서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게 되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의 ‘비로소’는 화자의 깨달음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④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갔’은 화자의 모습은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린 겨울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⑤ ‘따름이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방황과 혼란을 느꼈던 젊은 시절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 ‘먼 수풀이 온통 산밭을 하고 / 어지럽게 흔들려 / 갈피를 못 잡’던 ‘스물 안팎’의 ‘숨 가쁜 나무’에서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린 겨울나무’와 같은 나이가 된 ‘마흔 가까운’ 화자는 ‘비로소’ 삶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스물 안팎’의 열정과 방황은 드러나 있으나, 고독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화자는 ‘겨울나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겨울나무’를 시련의 시기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젊은 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겨울나무’에 대해 관조적인 시선은 유지하고 있으나, ‘겨울나무’를 통해 현실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5 [A]에는 겨울나무를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가 드러나 있고, [B]에서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B] 모두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형성화하고 있으므로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삶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하지만 [A]와 [B] 모두 화자의 이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 세상과 소통하려는 욕망을 확인할 수 없다.

19 낙치설

본문 274~28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글쓴이가 질문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08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 10 글쓴이는 이가 빠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근심하고 있으므로 관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12 인생의 근원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태도는 과거 글쓴이가 추구하던 삶의 태도이며 선왕의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대비되는 태도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③ 4 ③ 5 ⑤ 6 글쓴이는 ⑦로 인해 슬픔(놀라움, 서글픔)을 느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늙음을 수용하게 된다. 7 [A]에서는 늙음을 편히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면, <보기>에서는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 보려 하고 있다.

1 일상적인 경험인 앞니가 빠진 일을 계기로 삼아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자연물을 관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다.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과거의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독서를 통해 인생의 근원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태도는 이가 빠지기 전에 글쓴이가 추구하던 삶의 태도이다. 『예기』의 뜻을 익혀 살아가는 삶은 노인의 분수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인생의 근원을 찾으려는 글쓴이의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는 표현을 통해 삶의 이치를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글쓴이는 늙음을 편하게 여겨야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늙음을

잇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고 말하고 있다. ⑤ 갑자기 이가 빠진 결핍의 경험은 글쓴이가 그동안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3 ㉔은 점층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구의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다.

오답 해설 ① 이가 빠진 후 입술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비뚤어지는 등의 외형적 변화를 묘사하여 글쓴이가 인식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가 추구하던 삶의 태도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는 자세를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가 빠짐으로써 갖게 되는 긍정적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⑤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늙음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4 주자의 사례는 늙음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늙음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㉔는 글쓴이가 과거에 지향하던 삶의 태도와 대비되는 것이다. ② 글쓴이의 생각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노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는 삶은 이가 빠지기 전 글쓴이가 지향하던 삶의 태도이다. ③와 ⑥은 이러한 삶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㉔와 ㉕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5 ‘고기’와 ‘동안’은 앞니가 빠져서 겪는 불편함, 괴로움과 관련된 시어이지만, 글쓴이는 이를 슬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애상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면 글의 전개에 변화를 주는 효과가 있다. ② <보기>의 시에는 글쓴이의 체함과 성찰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글쓴이는 ‘빠진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④ ‘천란한 별’과 ‘무성한 나뭇잎’은 빠지기 전의 온전한 앞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볼 수 있다.

20 감나무 그늘 아래

본문 281~28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 06 시적 대상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며 유추적 발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 09 감각적 심상이 느껴지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② 4 ⑤ 5 형형 등불 6 감이 익어서 흥시가 되는 것처럼, 이별로 인한 서러움을 인내하면 내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1 ‘어찌 바람뿐이라. / 어찌 햇살뿐이라.’, ‘맞아 보게. / 들어 보게.’ 등에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과거 회상을 통한 시상 전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확대가 드

러나지 않는다. ⑤ 차치로 문장의 뜻을 강화시켜 독자의 느낌을 강화하는 점층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2 기다림을 통해 이론 내적인 성숙이 결국 세상을 환하게 하고 하늘을 부시게 할 것이라는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기다림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얻었으므로 대상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시는 대상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대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④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변화시키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3 ‘흰 구름’과 ‘장대비’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이다. ‘장대비’는 시련이나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흰 구름’은 위로나 위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땀방울이 커 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움이 심화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산이 우는 소리’와 ‘계곡 물소리’는 기다림의 깊이를 더하는 것들로 내면의 성숙을 위해 인내하는 과정과 관련된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감이 익어 가는 모습은 화자가 인내를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⑤ 질푸른 감이 형형 등불이 되는 모습을 통해 내적인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얻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4 이 글은 ‘파다다닥’, ‘포르르’에서, <보기>는 ‘하룻하룻’에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관찰 대상의 속성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명사형으로 사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이 글은 그렇지 않다. ② <보기>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얻을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글에는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은 ‘청설모가 포르르 타고 내려오네.’에서, <보기>는 ‘하룻하룻 꽃잎이 지는 어느 날’에서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지만, <보기>와 달리 이 글에서는 하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21 수목 정원 9-번집

본문 287~29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화자는 삶과 죽음을 연결된 것으로 인식한다.
- 06 역설적 표현을 통해 존재의 상호성을 제시한다.
- 07 조화와 어울림의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8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⑤ 5 ④ 6 번집이란 존재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음을 통해 조화의 원리를 나타낸다.

1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번집’ 등을 반복함으로써 조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

다. ③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번진다. 된다, 밝힌다, 날아온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에서 알 수 있다.

2 ①은 죽음에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에는 ‘외우기도 좋아라’, ‘읽기에도 좋아라’에 반어법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서 알 수 있다. ② ‘구린내가 향기롭다’, ‘가시가 너그럽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다.

3 죽음은 삶이 자신을 펴뜨리면서 전이시켜 나간 결실이다.

오답 해설 ① ‘번짐’이란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 일어난다. ② ‘번짐’은 ‘퍼져 나가는’ 현상으로 단절된 현상이 아닌 연속된 현상이다. ③ ‘너는 내게로 / 번져 어드렛 내가 되고 /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또 한번’을 통해 존재의 상호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4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는 ‘봄 나비 한 마리’와 대비되며 인간 세상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번짐이란 대상 사이의 경계와 차이를 없애는 행위이다. ② 목련꽃이 번져 여름이 된다. 즉 봄을 의미한다. ③ 열매는 꽃이 번져 이룩해 낸 결과물이다. ④ ‘번짐 / 번져야 사랑이지’에서 알 수 있듯 번짐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룩할 수 있다.

5 [A]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제시되어 있다. ④의 중장에서도 화자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② 인빈낙도와 연군의 정이 드러나 있다. ③ 봄밤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22 창해웅의 산수 여행

본문 293~29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창해웅이 여행하는 산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 04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가 경험한 바를 서술하고 있다.
- 07 영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산수 여행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창해웅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
- 10 창해웅과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글쓴이는 창해웅에 대한 오해를 벗고 그를 이해하게 된다.
- 12 창해웅은 허황한 세계를 추측하거나 말을 과장하여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13 창해웅은 해동의 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정신을 넓게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15 창해웅이 글쓴이에게 유산기를 건네주기는 했지만, 같이 산수 여행을 하자고 권유하지는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⑤ 5 ④ 6 ④ 7 글쓰이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산수 여행을 하는 창해옹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 1 중심인물인 창해옹의 산수 여행 이력이 서술되어 있으나 일대기적 구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창해옹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내용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기이한 풍경이 강렬하게 풍겼고, 기세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허황된 세계를 추측하느니 ~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창해옹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④ '아! 분명 창해옹일 것이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창해옹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⑤ 허황된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들과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다니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창해옹을 대비하고 있다.

- 2 창해옹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산수 여행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해옹은 시야가 좁은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순응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신전 가치를 중시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물질적 가치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창해옹은 인간의 사고로 헤아릴 수 없는 추자의 말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⑤ 창해옹은 허황된 세계를 추측하거나 말을 과장되게 하는 것 모두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3 '우리 성인께서는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둔다'고 하며 성인이 즐거움을 얻는 방식을 소개한 후, '창해옹의 즐거움을 산수 사이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라며 창해옹도 성인처럼 마음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다며 창해옹의 삶의 방식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추자는 허황된 말을 하는 인물로, 창해옹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② 옛사람이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표현히 훌쩍 세상을 벗어나 노니는 것은 맞지만, 창해옹이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다.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들이다. ③ 창해옹이 텅 빈 세계를 찾아 소용하는 것은 아니다. 텅 빈 세계를 찾아 소용하는 자는 열어구와 장자 같은 무리들이다. ⑤ 공자와 안연은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두고 있다.

- 4 ④와 ⑤는 모두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공간이다.

- 5 ⑤은 글쓴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⑤은 '인간 세상의 자들'을 비유한 표현으로 시야가 좁은 사람을 의미한다. ② 추자가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휘둥그레 눈을 뜨고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허황된 세계를 추측한다는 의미이다. ③ 세속적인 욕심을 버린 소박한 행장을 통해 물질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창해옹의 성품을 알 수 있다. ⑤ '조그만 이해를 보지만 하면 황급히 제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속적 이익에 연연한다는 의미이다.

- 6 글쓰이는 창해옹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선비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진정한 선비란 허황되거나 과장된 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해옹의 산수 행장이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진정한 선비의 자세와는 관련이 없다. ②, ③ 창해옹이 산수 여행을 한다는 점에서 자연 속에서 은거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선비의 자세로 볼 수는 없다. ⑤ 창해옹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23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본문 300~30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단호하거나 의지적인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05 겨울나무의 인위적 아름다움에 감탄할 뻔한 상황은 나타나 있으나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 07 계절의 흐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⑤ 4 ④ 5 ② 6 불꽃나무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을 의미한다.

- 1 겨울나무에서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식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光化門이란 빛을 발하고 있는 문이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광화문 네거리의 인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③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서 /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서'에서 알 수 있다. ⑤ '광화문 네거리'에서 알 수 있다.

- 2 ③는 자연적 상황에서 모든 생명체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으로, 영원성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⑥는 암담한 절망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이 시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세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③는 순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④, ⑤ ③는 자연적 상황에서 모든 생명체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며, ⑥는 암담한 절망적 현실을 의미한다.

- 3 화자는 겨울나무를 관찰한 후 인간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겨울나무에 꼬마전구를 밝히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환경 친화적 세계 지향이라는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명에 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③ 도시 생태에서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④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전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 4 '불현듯 불꽃나무!'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당할 뻔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성찰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둘러붙어 있다'에서 나무가 원치 않았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가로수가 일제히 켜지는 모습에서 확실성이 드러난다. ③ '황급히'에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이 올라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불꽃나무'의 모습을 즐기 위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5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의 모습은 정상적이다.

오답 해설 ① 밤에도 꼬마전구를 켜 환해진 거리의 모습이다. ③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밤이 내뿜처럼 밝아 잠들 수 없는 것이다. ④ 꼬마전구의 불빛을 쬔다. ⑤ 문제 상황을 인간에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노인이 가꾸는 화단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대체로 간결한 문체로 전달하고 있다.
- 04 이 글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06 글의 끝부분에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④ 2 ⑤ 3 ② 4 ① 5 ② 6 ② 7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 놓은 것 같다. 8 이 글의 '노인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 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인위적인 방식으로 화단의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보아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고, 글쓴이는 되는 대로 자라나는 봉선화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노인이 만든 나무를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에 바탕을 둔 수필로, 체험을 통해 느낀 점과 깨달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벌벌', '도닥도닥', '가득가득'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노주인이 화단을 가꾸는 모습을 소재로 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요즈음에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들을 구사하여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가 노인이 자신의 화단에 대하여 한 말에 대하여 '그런 날 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2 글쓴이가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 재주를 끝내 칭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두고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인'은 인위적으로 화초를 가꾸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경시키기까지 하지만 글쓴이는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노인의 재주를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노인'이 조석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일삼아 화단을 돌본다고 하였다. ② 노인은 정성껏 간호를 해도 화초가 소생하지 않아 섭섭해한다고 하였다. ③ 노인이 가끔 안손님들을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화단을 구경시킨다고 하였다. ④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글쓴이는 노 주인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화초보다 한편 구석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자라는 봉선화를 더 아름답다고 평가한다. 이는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 4 '봉선화 몇 떨기'는 자연 그대로 자란 것으로, 글쓴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무이다. 나머지는 노인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어 가꾼 나무들로, 글쓴이가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고 평가하는 것들이다.

- 5 글쓴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은 마지막 문단에 집약되어 있다. ①은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므로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④는 '노인'이 인위적인 손길로 공을 들여 가꾸는 대상이다. 글쓴이는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을,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하는 것으로 여기므로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보기 어렵다. 글쓴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대상은 ⑤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③은 부정적으로, ⑥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노인이 공을 들여 가꾸며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는 것으로 보아 ③은 잘 보이는 곳에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은 한편 구석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④ ⑥은 노인이 공을 들이고 있으므로 노인의 손길을 많이 받은 대상이며, ⑥은 되는 대로 자라는 것으로 보아 노인의 돌봄을 거의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⑥은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여서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⑥은 마음껏 자란다고 볼 수 있다.

- 7 글쓴이는 노인이 자신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꾼 화단의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를 부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25 애물의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순임금과 백익, 태강과 공숙단, 공자의 행위를 제시하여 인간과 만물이 함께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으뜸이며 만물이 그다음이라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 06 불교의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났을 뿐, 글쓴이가 자신의 사상이 불교의 계율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활을 한 번 쏘아 돼지 다섯을 잡을 수 있도록 동물을 잘 기른 것을 나타낸 것으로 '어질게 대한다'의 예이다.
- 10 군자가 동물보다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한 예이므로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의 예이다.
- 11 글쓴이는 삶이 참혹한 지경에 이른 경우에 살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율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지 살생하지 않는다는 계율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② 2 ④ 3 ④ 4 ⑤ 5 ① 6 만물이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 7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생을 했기 때문이다. 8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는 것은 만물의 본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활을 쏘되 참든 새는 쏘지 않는다', '사냥하되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는다' 등이 그 예이다.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여름·가을·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 1 이 글은 문답 방식을 통해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고 있는 글이므로 감성적이라기 보다는 논리적이다.

오답 해설 ① 군자가 사람과 만물을 대하는 방식 등에서 다양한 예를 활용하고 있다. ③ ‘어떤 이’와 ‘나’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대화체를 사용하여 딱딱한 내용을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④ ‘주역’, 『시경』 등의 유교 경전을 인용하고 성현들의 말과 일화 등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⑤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2**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라는 『시경』의 노래는 숲에 불을 질러 짐승을 한쪽으로 쫓아 사냥했던 ‘공숙단’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필요 이상으로 ‘살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더라도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세상과 사유의 중심에 두되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② ‘인민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드러낸다. ③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만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윤리적 관점에서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⑤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는 인간의 삶이 참혹한 지경에서 ‘살생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율에 얽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인본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A]는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을 묻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요지를 언급한 후,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역』의 구절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논지와 관련된 성현들의 말을 두루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현상의 결과보다 다방면에 걸친 원인들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특정 현상의 발생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글쓴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 또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세상 만물의 본성과 생성 과정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글쓴이는 군자가 살생을 하는 이유는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해 ‘살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절히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살생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한다는 의미이다. ② 가축을 기를 때에도 시기를 잃지 않은 것은 적절히 가축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③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여 잔치와 제사에 이용한 경우는 인민을 위한 행위이다. ④ 살생을 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 5** 불이 났을 때 동물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자의 행동은, 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구간의 말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걱정할 것이다.

- 6** 글쓴이는 ‘어떤 이’가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만물이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26 동백꽃

본문 319~32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사회적 계층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06** 화가 난 점순이의 모습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표정 등으로 성격이나 심리를 드러내는 간접적 제시 방식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12** ‘나’는 점순이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 13** 점순이는 감자를 건네며 호의를 보이지만 상냥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15** ‘나’는 감자를 싫어해서 거절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④ **4** ⑤ **5** ② **6** “느 집엔 이거 없지?” **7** ‘나’와 점순은 소작인 아들과 마름의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경우 땅도 집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다. / 점순이 생색내듯 감자를 건네는 모습에 ‘나’는 소작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 거절한다.

- 1** ‘나’는 점순의 호의를 거절한 후, 점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나를 보면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를 통해서 ‘나’는 점순이 화난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점순네는 ‘나’의 가족들이 마을에 정착할 때 집터도 빌려 주고, 필요할 때는 양식을 빌려주었다. ④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나’를 쏘아보고 눈물까지 머리는 것으로 볼 때 점순이는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실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나’의 어머니는 점순이와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주었다.

- 2** 서술자가 주인공인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역순행적 구성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②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 글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 중 제한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제한적 시점의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나 사건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3**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미움의 표현이자 ‘나’의 관심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에서 알 수 있다. ③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에서 알 수 있다. 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쪼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김

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로 보아 점순이는 '나'가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것과 는 관계없이 감자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나'의 가족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온 부분이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이다. 그 다음 '나'는 평소 점순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감자 관 련 일화가 제시되며 이어서 닭싸움에 관한 일화가 소개된다.

5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인 공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발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보기>에는 발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독자가 서술자에게 친밀감 을 느끼는 것은 인물이 독자 곁에서 이야기해 줄 때이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가능한 일이다. ④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 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⑤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었으므로 관찰자 시점과는 거리가 멀다.

27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본문 326~33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자본가 계층에 속한 서술자를 통해 노동 문제에 대한 자본가의 시 각을 드러내고 있다.
- 04 노동자 계층의 일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 05 '법정'은 노동자 계층이 재판을 받는 곳으로 희망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08 '나'는 '윌터 스콧'을 허풍쟁이로 폄하하고 있다.
- 09 '나'는 지섭의 말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
- 11 '작은 악당'은 영수이고 '큰 악당'이 지섭이다.
- 12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것은 노동자 계층이다.
- 17 지섭이 '우리'를 최고의 악당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⑤ 4 '그물'은 자본가를 의미하고, '가시고기'는 노동자를 의 미한다. 자본가의 그물에 노동자인 가시고기는 걸릴 수밖에 없으며 가시만 남은 고기는 그물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5 ④ 6 ③

1 서술자인 '나'는 '영수'와 '지섭'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사건에 대한 서술과 '나'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천천히 전 개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나'의 체험과 '지섭'의 체험이 교차되지 않았다. ⑤ 장면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나'가 한지섭이 '큰 악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증언 내용을 들은

이후가 아니라 선서를 한 직후이며 직감으로 알았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이 자신들을 압박한다는 '모진 생 각'을 지닌 것을 잘 안다고 하였다. ② '나'는 노동자 계층이 불가능한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 행복을 거부하며 더러운 나그네를 내고 있다. ③ '나'는 노동자 계층이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는데도 찡그린 얼굴을 퍼 본 적이 없다고 판단한다. ⑤ 아버지 에 대한 난쟁이 큰아들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었다고 옹 호한다.

3 지섭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살해했 다는 영수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직접적으로 변호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지섭은 영수의 행위가 아버지가 행한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강요 된 행위'였음을 역설한다. ② 자본가가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저임금으로 노동자 를 착취한 것이 노동자가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억압은 모 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압박을 의미한다. ④ 거대한 은강 그룹 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과 보호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5 위증의 벌을 받았다고 맹세한 것 자체는 재판 과정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맹세 자체가 한지섭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난쟁이'는 경제적 약자를 뜻하며 이 글의 경제적 약자는 영수와 지섭 이다. ②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③ 영수 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고자 자본가 계층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살인으로 표출했 다. ⑤ 윌터 스콧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 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찢 차 있다고 개탄했다.

6 이 글의 지섭과 <보기>의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이 글은 모두 19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노동자 문제 를 다루고 있다. ② '다시 어둠의 돌아가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이 글의 지섭 과 영수, <보기>의 '나'는 모두 노동자 계층이다. ⑤ 이 글에서는 영수가 자본가 계 층에 속하는 회장을 살해하고자 한 것. <보기>에서는 '슬픔도 퍼다 버린다'에서 알 수 있다.

28 메밀꽃 필 무렵

본문 333~34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동이 모친이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이 제천이고, 고향은 봉평이다.
- 04 조 선달은 동이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동이와 허 생원의 관계를 짐작하기 어렵다.
- 05 허 생원과 동이는 모두 왼손잡이로, 이는 허 생원과 동이가 혈연 임을 암시한다.
- 08 시나리오에서 허 생원이 더 이상 나귀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고 한 것은 동이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09 허 생원이 땅패기를 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떠돌이 생활을 청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1 성씨가 초 씨인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무언가를 잘 만들었기에 초 서방이라 부른 것이다.
- 12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은 시나리오에서 배우의 행동 연기로 대체되고 있다.
- 14 동이가 제천으로 동행하는 이유를 시나리오에서는 어머니를 뵈러가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 17 동이가 아들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소설과 시나리오 모두에서 허 생원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⑤을 통해 조 선달이 강을 먼저 건너고 동이와 허 생원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동이가 허 생원의 아들임을 짐작할 수 있는 과거 이야기를 허 생원만 듣게 된다. 이 장면을 (나)에서는 조 선달이 먼저 건너간 후 허 생원을 부르는 장면으로 각색하였다. 4 ③ 5 ④ 6 '왼손잡이'는 허 생원과 동이의 혈연 관계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가)에서는 허 생원이 동이가 왼손잡이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반면, (나)에서는 동이가 자신의 생부가 왼손잡이었음을 직접 밝힘으로써 동이와 허 생원이 혈연관계임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 1 동이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장돌뱅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개울로 들어간 것은 장마에 쓸려간 날다리가 아직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동이는 허 생원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하였다. ③ 다음 행선지는 대화장을 보고 제천으로 가는 것으로 허 생원 일행 모두 알고 있다. ⑤ 허 생원의 마음이 동실동실 가벼운 까닭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 2 (가)의 배경과 (나)의 배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물살이 센 개울가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③ (가)에서 언급된 동이의 망나니 외부 이야기를 (나)에서 삭제함으로써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부자 관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④ (나)에서 더 이상 나귀 새끼 같은 건 보지 않아도 된다는 허 생원의 대사는 허 생원이 동이를 아들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⑤ (나)에서 땅땀기를 산다는 대사를 추가한 것은 어딘가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허 생원이 동이에게 가지는 혈연으로서의 확인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4 '초 서방'이라는 별명은 시나리오에서 추가된 허 생원의 젊은 시절 별명일 뿐, 허 생원의 성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해갑다', '탐탁하다' 등과 같은 인물의 생각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각색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서와 달리 (나)에서 동이는 '~유'와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④ (나)에서 허 생원이 메밀꽃 핑계를 대는 것은 시나리오에서 달라진 부분이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가)와 동일하다.

- 5 작품의 핵심 배경은 봉평에서 대화로 이어지는 산길로, 메밀꽃밭에서의 밤 산책을 기획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나귀 새끼는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귀 새끼가 강릉에 있는 것은 있다. ② 허 생원 일행이 제천으로 향하기로 한 것은 (가)의 말미에 대화로 제시되어 있을 뿐 제천으로 가는 산길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으며, 동이 모친 역시 (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③ 동이 모친의 고향은 봉평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개울은 사람이 빠질 만큼 물살이 센 곳이다.

PART 4 | 실전 학습

01 청백운

본문 342~34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호 소저와 혜화 소저는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지만, 나교란과 여섬요는 간교하게 행동을 하는 등 유교적 덕목과는 거리가 멀다.
- 05 두쌍성의 수난은 두쌍성이 들인 첩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10 호 소저가 설 부인을 원망한다고 한 것은 나교란이 호 소저를 참소하느라 꾸며 낸 말이다.
- 12 혜화 소저는 호 소저의 인품과 상황을 근거로 두쌍성에게 호 소저를 변호하고 있다.
- 13 두쌍성은 원래 이성적인 인물이었지만, 첩들의 참소와 상황의 변화로 점차 변해 가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② 4 제물이 담긴 그릇 속에서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발견된 일 5 ⑤ 6 ③ 7 두쌍성은 나교란과 여섬요라는 기녀를 잊지 못해 병을 얻고, 첩으로 들인 뒤에도 그들의 음해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삿일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호 소저를 미워한다. 또한 두 첩의 참소에 흔들려 호 소저가 제물에 머리카락이 섞였다고 의심하여 시녀들을 문초하는 등의 행동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 제시된 지문에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나교란과 여섬요가 호 소저를 음해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 등장하는 두쌍성과 호 소저, 나교란, 여섬요는 현실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③ ④ 두쌍성 가정에서 벌어지는 호 소저와 나교란, 여섬요의 갈등이 서사 전개 중심이 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가정 내 질서와 효(孝)를 강조하고, 대표적인 인물로 호 소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2 호 소저는 자신이 제물에 머리카락이 섞인 사건에 연루되자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다고 하며 '누추한 곳에서 대죄'하고 있을 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교란과 여섬요는 호 소저가 뒤돌 작은 당에서 대죄한다는 소식을 듣자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 소저에게 문안하였다.'라고 하였다. ② 별채에 불이 난 사건에 대해 노복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두쌍성에게 호 소저는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④ 두쌍성은 제물을 담은 그릇마다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는 분명 고의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⑤ 나교란과 여섬요는 두쌍성이 호 소저를 미워하자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다.'라고 하였다.

- 3 "우리 호 부인이 지극한 효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은 살피십시오."를 통해 시녀들은 호 소저의 지극한 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뒷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시녀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두쌍성은 평소 자기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았다.'를 통해 두쌍성은 감정을 잘 다스림을 알 수 있다. ④ 무고한 호 소저를 의심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⑤ 두쌍성이 시비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아, 호 소저가 제물에 머리카락을 넣지 않았음을 밝히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두쌍성은 나교란과 여섭요의 계략으로 제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자 이를 호 소저가 고의로 한 것이라 믿고 시비들을 문초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두쌍성은 호 소저를 더욱 의심하며 갈등이 극대화된다.

5 ⑥는 제물 그릇 속에 든 머리카락 사건이 나교란과 여섭요의 짓인 줄 모르는 두쌍성의 상황을 '안갯속에 갇힌' 것으로 비유하여 평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③과 ⑥는 서술자가 직접 서사에 개입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② 편집자적 논평은 작중 상황이나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③ ④와 ⑥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사리분별을 못하는 두쌍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④ ⑥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다.

6 두쌍성이 제물에 불경한 짓을 한 자를 찾는다는 점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증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두쌍성이 제물 그릇에서 머리카락을 보고 호 소저를 의심하는 것도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호 소저에 대한 사적 욕망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 줄거리>의 '두 침들은 실 부인과 두쌍성의 누이인 혜화 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실 부인이 죽자 호 씨를 쫓아내려 음해한다.'를 통해 호 소저와 교활한 침들 사이에 외적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후 두쌍성은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삿일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날이 갈수록 호 소저를 더욱 미워하였다.'를 통해 두쌍성이 감정에 좌우되는 평범한 인간임을 알 수 있다. ④ 시비들이 '제사 때가 되면 호 부인에게서는 목욕재계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호 소저가 효를 다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사대부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과, 혜화 소저가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던' 호 소저의 일을 들어 두쌍성을 설득하는 것에서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모습이 드러난다.

02 출새곡

본문 349 ~ 35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안변을 지나면서 윤관과 김종서의 공적을 예찬하고 있다.

07 화자는 자신을 경성 판관으로 부임시킨 임금에 대해 '망국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여정에 따라 임금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의 표현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당스러워 한다고 볼 수 없다.

10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이로다'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부임한 곳은 오랑캐 땅과 가까운 곳으로 군사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③ 4 ② 5 ③ 6 ③ 녹양, ⑥ 낙민루 7 변방으로의 부임 과정과 임지 생활에서 느낀 소회

1 이 글은 여타의 사대부 기행 가사와는 달리 비애와 한탄의 정조를 느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을 '적객', 즉,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에서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세상일에 시름하는 반면, 어부는 세상일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작가가 임금의 명을 받고 경성 판관으로 떠나면서 지리, 풍물과 그곳 생활의 애환을 읊은 가사이다.

2 이 글에서는 부임지에서의 생활에 대해 깊은 시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대궐로 돌아갈 길 어떻게 기억할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②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등에서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③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 도다'라며 안변을 지나갈 때 고려 장수 윤관과 조선 무신 김종서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④ '회양', '안변' 등의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여 화자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 이 글에서 화자가 자연을 벗 삼으며 근심을 잊고 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략> 이후 화자와 대화하는 어부에게서 자연 친화와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봄의 흥취를 즐기고 있다. ②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를 통해 화자는 나이가 들어 변방의 임무를 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경성이 접경인데',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이로다'를 통해 화자가 부임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을 알 수 있다. ⑤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에서 임금과 멀어지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4 화자는 임금이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경성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칼'이라는 소재를 통해 화자의 임무 중에 군사를 다스리는 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임금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한묵(翰墨)'은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을 뜻하는 말로, 화자가 글공부를 하던 중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적객'은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임금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화자의 아쉬움을 귀양살이로 표현한 것이다. ④ '안변'을 지날 때 그곳과 관련된 업적을 지닌 장수를 생각하며 그들을 예찬하고 있다. ⑤ 고향을 보고 싶지만 높은 고개에 가려져 볼 수 없다는 뜻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5 이 글의 '칼'과 <보기>의 '옥절'은 화자가 부여받은 임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의 화자가 이를 통해 마음속으로 지닌 포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망국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를 통해, <보기>에서는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국(罔國)하'를 통해 드러난다. ② 이 글에서는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를 통해, <보기>에서는 '평구역(平丘驛) 물을 7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경성이 접경인데',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 시니'를 통해, <보기>에서는 '관동 팔십 리(關東八百里)에 방면(方面)을 맞드시니,'를 통해 각각의 지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임금계 절 올리고'를 통해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했음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는 '연추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 남문(慶會南門) 바라보며,'를 통해 연추문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경회 남문을 통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6 화자는 임금에게 인사를 한 후 홍인문을 거쳐 녹양으로 가서 말을 갈아타고, 그 후 회양, 안변, 정평부, 낙민루를 거쳐 목적지에 당도했다.

03 망설

본문 356~36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성현과 군자의 일화를 통해 중심 화제인 '잇기'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적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06 설의 문체적 특징이 드러나지만 이 글은 비판적 시각이나 주장보다는 잇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성찰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11 두 번째 북경 방문뿐만 아니라 유배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망(忘)'자를 실천했다.
- 12 글쓴이는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잇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 14 문왕은 감옥에서도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고, 정자는 유배지에서도 모발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술을 마신 사람은 당개이다.
- 15 글쓴이는 학문과 사색을 통해 마음을 넓히고 근심을 잊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⑤ 5 문왕, 정자 6 글쓴이는 부귀한 처지에서는 부귀에 맞추어, 빈천한 처지에서는 빈천에 맞추어 살아가며,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르고자 하는 삶의 경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다.

- 1 성현이나 당개와 같은 권위자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물이나 그러한 인물의 행태를 부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가 사신으로 북경을 다녀오고 유배를 가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잇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성현과 당개의 일화를 제시하여 잇는 것이 오래된 것이며 잇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잇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서 '잇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 2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 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는 임당 정유길의 북경에 갔을 때의 대응이므로 글쓴이가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북경보다 훨씬 멀'다는 것에는 외딴 지역인 북방으로 유배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약도 없으며, 죽는 사람이 아홉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이다.'에는 척박한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뇌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한 걸음을 땀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었다는 것에는 글쓴이가 학문에 힘쓰고 사색하는 노력을 통해 유배지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북방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3 '손님'은 '나'에게 '임당의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걱정하지 않는 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며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였다. ② 글쓴이는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걱정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③ 글쓴이는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며 본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⑤ 글쓴이는 근심을 잊기 위해 '아침에도 잊고 저녁에도 잊고 밤에도 잊고 앉아도 잊고 누워도 잊'는 노력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고 보기 어렵다.

- 4 <보기>에서 군자는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며 천명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글쓴이는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상태를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잊을 망이라는 '한 글자에 의지'하며 근심을 잊으려 노력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근심을 잊기 위해 노력한 것은 자신이 그 처한 위치에 따라 행동하는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려야 한다는 정유길의 비결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풍파를 겪을 때마다 '잊을 망'자를 떠올려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은 아니다. ② 글쓴이가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역경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 자신을 바르게 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글쓴이가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한 것은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한 것을 행하고 요행을 바라는 소인의 행태를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마음에서 잇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걱정을 잊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지만,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하여 걱정을 잊을 수 있다고 하였다.

04 도둑맞은 가난

본문 363~37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나'와 상훈은 외적 갈등을 겪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끝을 맺고 있다.

- 07 '나'와 상훈 외에 다른 인물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

08 인물의 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9 ‘나’는 폐병쟁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상훈에게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건네준다.

11 상훈이 부잣집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가 상훈과 싸우고 난 뒤의 일이다.

12 상훈은 폐병쟁이를 진심으로 동정하지 않았다.

15 상훈은 가짜 가난뱅이 체험을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자신의 집에 와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훈의 말에 치욕을 느끼고 분노한다.

18 ‘나’가 상훈을 내쫓은 것은 상훈이 가난한 ‘나’의 삶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21 ‘나’는 상훈과 같은 부유층에게 가난한 ‘나’의 존엄성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고는 절망감을 느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⑤ 4 ⑤ 5 ① 6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유층에 의해 ‘나’의 존엄성(자존감, 인격)을 도둑맞은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1 이 글은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 심리가 고백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공간의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한 공간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나’는 상훈이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상훈은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폐병쟁이를 도왔다. ③ ‘나’는 가난을 이겨 내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했다. ④ ‘나’는 상훈을 통해 폐병쟁이를 돕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⑤ ‘나’는 폐병쟁이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상훈에게 공동의 예금 통장을 건넸다.

3 ‘나’가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아끼자고 상훈을 끌어들이는 것은 가난한 살림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나’가 절망감에 빠진 것은 상훈이 ‘나’의 가난을 흠쳐갔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빗발로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등에서 가난한 빈곤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상훈에게는 삼만 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돈이라는 점을 통해 상훈과 ‘나’의 경제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③ 부잣집 대학생임을 밝힌 상훈이 ‘나’에게 자신이 집에서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것은 가난한 ‘나’의 인격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식들에게 일부러 가난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빈곤층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다.

4 ㉠은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한 반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회상한 유사 사례이지, ‘나’가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와 갈등의 경계 되는 원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는 생각에 흐트해하고 있다. ② 폐병쟁이를 돕는 것도 돈을 모두 써 버린 것도 상훈에게는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③ ‘나’는 형편이 어려워 적은 돈을 쓸 때도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④ ‘나’는 큰 돈을 다 쓰기도 편히 자고 있는 상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5 이 글의 ‘나는 가난으로 인해 인격을 무시당한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그리움 같은 인간적 감정마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에서의 가난은 1970년대의 사회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③ 이 글의 ‘나’는 가난을 이겨 내려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의 화자는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④ <보기>의 화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글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고자 하지는 않는다. ⑤ 이 글의 ‘나’가 절망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그 리움 때문이 아니라, 가난을 도둑맞았기 때문이다.

05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본문 371~376쪽

기본 실력 다지기

05 소재인 복숭아나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9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흰 꽃과 분홍 꽃)은 찾을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④ 4 눈부서 눈부서 알았습니다 5 ④ 6 ⑤

1 이 글에 사용된 소재는 ‘복숭아나무’로 일상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복숭아나무’라는 시적 대상이 개별화된 특정한 대상임을 암시한다. 또한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와 같이 반복, 변주되면서 시적 대상이 초점화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2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나 있다. ⑤ 전체에 걸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2 ‘흰 꽃과 분홍 꽃’은 복숭아나무의 외면적인 모습으로, 화자는 복숭아나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3 [D]는 화자가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외로움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복숭아나무이므로 ‘피우고 싶은 꽃빛’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때문에 화자는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멀리로 멀리로만’과 같이 반복을 통해 대상을 꺼리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눈부서 눈부서’와 같이 반복을 통해 화자가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 순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숭아나무 그늘에 머물면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5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숭아나무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복숭아나무의 수천의 빛깔을 파악하지 못한 화자가 파악한 피상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② ‘앉지 못할 그늘’은 사람과 교감하지 못할 성정을 지녔으리라는 의미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에 해당한다. ③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꺼려 멀리한 것이 오히려 수천의 빛깔이라는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파악하게 한 것이다. ⑤ 저녁은 편견이 사라진 시간으로,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이해와 조화, 교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 6 이 글의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 그늘에 가까이 가지 않다가 인식이 전환된 이후 복숭아나무 그늘로 가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보기>의 ‘나’는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에서 알 수 있듯 ④를 떠난은 현재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06 가재미

본문 377~38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④ 4 ③ 5 ③ 6 화자는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워 ‘그녀’에게 ‘눈길’을 건넨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 낸다. 이러한 화자의 행위는 죽음을 앞둔 대상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이라는 정적 이미지와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이라는 동적 이미지가 대비되며 죽음을 앞둔 그녀의 삶에 대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독백적인 어조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나 후각적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2 화자는 시적 대상과 합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시적 대상인 ‘그녀’의 과거 삶을 떠올리며, 힘든 삶을 살아온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워 ‘그녀’를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 자신도 시적 대상과 같은 ‘가재미’라 칭하면서 바닥에 누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수평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를 통해 시적 대상과 상호 작용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을 관조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를 통해 대상과의 미적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 곁에 ‘나란히’ ‘눕는’ 행위를 통해 미적 거리를 좁히려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해설 ①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 곁에 ‘나란히’ ‘눕는’ 행위는 ‘그녀’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공감, 위로의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 ②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대상 곁에 자신도 ‘한 마리 가재미’처럼 눕는 것은 ‘그녀’의 처지를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나’는 ‘그녀’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③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적 눈물을 쏟아내는 것은 ‘나’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한 것으로 인한 정서적 반응으로 <보기>에 의하면 미적 거리가 좁아든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가 ‘그녀’ 곁에 누운 것은 ‘그녀’를 향한 ‘나’의 공감이며, ‘그녀’가 나란히 누운 ‘나’에게 자신이 ‘들어마신 물’을 ‘가만히 적셔’ 주는 행위는 ‘나’를 위한 ‘그녀’의 애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감정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둘 사이의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 4 ①은 화자가 암 투병 중인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로부터 배려와 연민을 받는 공간이다. 따라서 ①은 화자와 대상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외롭고 힘들었던 ‘그녀’의 삶을 떠올리는 공간은 맞지만, 이로 인해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공간은 아니다. ② 화자의 불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는 ‘그녀’의 과거를 떠올릴 뿐, 화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⑤ 화자는 삶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죽음을 앞둔 ‘그녀’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5 이 글과 <보기> 모두 대비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 글은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그녀의 오솔길이며 ~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에서, <보기>는 ‘~ 중에서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글은 ‘가재미’에 비유하여, <보기>는 ‘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과 달리 <보기>는 자연물인 ‘별’을 ‘너’라고 지칭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글과 달리 <보기>는 ‘어디서 ~ 다시 만나랴’라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07 호질

본문 383~39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작품은 호랑이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지는 않는다.
03 호랑이가 북극 선생을 처벌하지 않는 모습이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호랑이가 유교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6 호랑이는 인간과 대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입각해 생활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07 작가의 좌절감을 확인하기 어렵다.
12 북극 선생이 호랑이를 만난 뒤에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7 북괵 선생은 호랑이를 만난 뒤 농부와 대화에서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으므로 진정한 뉘우침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③ 4 ② 5 ⑤ 6 ③ 7 북괵 선생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풍자하기 위한 장치로, 인물을 희화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 호랑이가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세어 봐도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는 않다고 비교한 바 있으나, ④처럼 둘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북괵 선생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비굴하게 애원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③ 북괵 선생은 농부 앞에서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있다. ⑤ 호랑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2 주로 호랑이와 북괵 선생의 대화를 통해 서사가 전개되고 있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간 사회에 대해 의인화된 호랑이의 입을 빌려 비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내면과 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은유와 비유보다는 의인화된 대상에 의해 직접적인 표현으로 전개된다.

- 3 [A]에서는 호랑이의 성품을 인간과 비교하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들과 대조하고 있다. 특히 호랑이의 성품이 순수하고 고결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악행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호랑이의 규범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자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② [A]에서 호랑이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간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고 있으나 호랑이가 인간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호랑이의 성품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완할 부분을 찾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4 [B]에서는 낱알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냉소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C]에서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여전히 허세를 부리는 북괵 선생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C]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드러내기 위해 인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B]에는 인물의 주관적 판단이 주로 드러난다. ④, ⑤ [C]에는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5 <보기>에 따르면 호랑이를 의인화한 것은 당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비현실적 요소를 개입시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율학자의 실체를 희화화하여 폭로한 점에서 작가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율학자뿐만 아니라 열녀로 칭송받는 동리까지 낱알이 이중적 행태를 폭로하고 있다. ③ 호랑이의 의인화는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④ 작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계층의 비윤리적 행태를 호랑이의 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6 ㉠은 인간도 범이나 곤충과 같이 만물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

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만물이 모두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북괵 선생의 비굴한 모습을 희화화한 표현이다. ② 호랑이의 본성이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을 뿐, 도덕적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능력을 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상대방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08 여수

본문 391 ~ 39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이 작품에 행간 걸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 06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의 나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7 단정적인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08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⑤ 4 ⑤ 5 ③ 6 ‘달팽이’는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사물의 형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1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대상이 등장하지 않으며, 화자의 처지와 동일한 존재인 장돌뱅이와 달팽이가 등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누덕누덕이 기워진 때 문은 추억’에서 관념의 구체화가 나타난다. ② ‘너무나, 너무나,’에서 시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슬픈 마음이며,’에서 현실에서 느끼는 애상적 정서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신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휘저어보는 것이냐!’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 중에서도 직유법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2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에서 세상의 고단함을 삶의 무게로 짊어진 모습을, ‘고달픈 주막 꿈처럼’에서 잠시 주막에서 힘든 삶을 쉬어가는 고달픈 인생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수’는 고향을 떠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며,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린다.’에서 세상에 대한 희망을 모두 버린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누덕누덕이 기워진’에서 기억들이 온전하지 않고 조각조각 난 것임을 알 수 있고, ‘때 문은’을 통해 온전하지 못한 추억이라도 오랜 시간 화자에게 소중하게 간직한 기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괴로운’, ‘외로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가 직접 표현되어 있다. ⑤ ‘달팽이’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로, 달팽이가 뽕을 내밀고 휘젓는 모습에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솟아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 3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혼란한 현실을 바로잡는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작품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괴로운, 작가가 실제로 지병으로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반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평복 후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식인이었던 작가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③ 작품에 드러

나는 방랑의 모티브가 실제 작가의 유랑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④ 작품 경향이 현실 참여적으로 바뀐 데에는 광복 후의 사회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4 ‘시정배’는 세상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여수’에 잠기면 조그만 희망조차 숨어 버리므로, 현실의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요령’이 흔들리는 모습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추억이 무성한 숲속’은 화자가 ‘이상스러운 세월들’ 속에서 고향을 떠올린 공간이다. ④ 현실은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감을 짊어질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5 ④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난 소재로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만, ⑥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오답 해설 ① ③과 ⑥는 모두 자연물이 아니다. ② ③과 ⑥는 모두 현실을 상징하지 않으며, ③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⑥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세계에 대한 소망의 정서를 드러낸다. ④ ③과 ⑥는 모두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⑤ ③은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 느끼게 된 감정을, ⑥는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나타낸다.

09 방울소리

본문 397~40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화자는 청계천 7가에서 방울을 산 후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뿐,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라는 정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 10 화자는 시끄러운 도시 문명 속에서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 현실을 도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⑤ 5 ⑤ 6 옥분씨, 누나 7 3연에서는 방울소리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 1 ‘방울소리’에 주목하여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 않다. ③ ‘소’라는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소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고 화자가 소와 교감하고 있지도 않다. ④ 어조가 변하고 있지 않으며, ‘장사치들의 흥정’과 ‘삼류차가 울려 대는 경적’으로 볼 때 정적인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다. ⑤ ‘터덜터덜’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2 화자는 청계천에서 구입한 방울을 통해 어린 시절 자신이 소를 몰고 산을 내려오던 때를 회상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소음이 가득한 문명 속에서는 옛날처럼 방울소리가 옥분씨네 안방에까지, 사립문 밖에 서 있는 누나에게까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볼 때, ‘나’가 일부러 방울소리를 크게 내며 지나가는 장면은 영상으로 형상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화자가 방울을 사는 것과 관련된 다. ② 2연의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팔랑거리던 / 소’와 관련된다. ③ 삼류차의 경적은 방울소리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3연의 ‘삼류차가 울려 대는 경적’ / 저자 바닥에 따라온대’와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④ 2연의 ‘나는 소를 몰고 ~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와 관련된다.

- 3 <보기>는 고향을 떠난 화자가 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며 집 생각을 떠올리는 애뜻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글은 화자가 청계천에서 구입한 방울을 매개로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현재의 도시 문명과 과거 고향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대 현실에 대한 고뇌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기> 역시 객선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이것을 시대 현실의 고뇌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의 ‘삼류차가 울려 대는 경적’에 물질문명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 역시 ‘객선’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물질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소재는 아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청계천 7가’에서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보기>는 1연에서는 ‘산’에서 바다를 보다가 5연에서는 ‘물’로 내려오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4 방울소리를 의인화하거나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돌담 너머 옥분씨네 안방’, ‘사립문 밖’으로 표현되는 과거 고향의 공간과,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 골목’, ‘저자바닥’으로 표현되는 현재 도시 문명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 ② ‘문명의 / 골목’에 행간 결침이 사용되어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다. ③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삼류차가 울려 대는 경적’과 같이 청각적 심상을 통해 현대 도시 문명의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말랑이는 방울소리’는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과거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들릴까 말까’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5 ⑥은 과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화자는 ①을 매개로 소박하고 평화롭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①을 생각한다. 그리고 ⑥과 함께 ‘옥분씨’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게 된다. ③ 현재 화자는 ⑥으로 상징되는 떠들썩한 문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⑥을 들으며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그리워하고 있다.

10 먼 곳에서의 그리움

본문 403~408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글쓴이가 동경하고 기대하는 삶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글이다.
- 06 글쓴이는 자신의 계획을 ‘반설계’라고 하며 동경하고 기대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있지 않다.
- 09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먼 곳’은 물리적인 공간과 거리가 멀다.
- 10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는 설의법에 의한 표현으로, 동경과 기대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 12 글쓴이는 소망하는 삶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고 한 것이지, 그것이 몇 개월이나 몇 주일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⑤ 3 ④ 4 ④ 5 ④ 6 ② 7 동경과 기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1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사유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닌, 글쓴이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집시의 생활이나 정열적인 삶을 소망한다. ④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플랜은 그것이 ~ 무슨 상관 있으리요?’에서 알 수 있다. ⑤ ‘먼 곳의 그리움(Fernweh)! ~ 혼자이고 싶은 마음!’에서 알 수 있다.

- 2 글쓴이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근원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동경과 기대’를 하며 먼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것에서 일상에 안주하여 사는 삶을 부정적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③ 혼자이고 싶고,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에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에서 알 수 있다.

- 3 글쓴이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지, 일상의 삶과 새롭고 낯선 세계의 삶을 비교하여 후자를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동경과 기대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매워진 삶’을 살고자 한다. ③, ⑤ 글쓴이는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에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여 꿈과 이상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찬란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을 새해가 주는 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 4 ‘반설계’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며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Fernweh’란 먼 곳을 향한 동경을 의미한다. ② 낯선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집시의 삶을 가장 이상적 형태로 보고 있다. ⑤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매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한다.

- 5 ‘먼 곳’과 ‘바다’는 각각 글쓴이와 화자의 이상향으로 관념화된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바라래 살리랴’에서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그러나 동경과 기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보기>의 ‘조롱꽃 누르기 밭과 잡초와 나 내 엷디 히리있고’에서 알 수 있다. ③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이루어짐 같은 게 무슨 상관 있으리요?’와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매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 6 글쓴이는 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인간이라면 낯선 곳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④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글쓴이가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곳은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새해를 맞아 가기를 꿈꾸고 있는 공간이다.

11 삼대

본문 409 ~ 41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7 이 글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는 액자 소설이 아니다.
- 11 남의 집 딸을 유인하여 비도덕적 행동을 한 사람은 덕기가 아니라 상훈이다.
- 12 영감은 교육 사업에 큰돈을 쓰는 상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감이 교육 사업을 권했는지는 알 수 없다.
- 15 덕기가 취중에 그의 아내에게 경애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덕기의 아내가 시어머니(상훈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시어머니가 상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
- 19 상훈은 경애와 그녀의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덕기의 말에 경애의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③ 5 ⑤ 6 ② 7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및 현실 대응 방식

- 1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제시된 부분 중 <중략> 이전은 상훈의 관점에서, <중략> 이후는 덕기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상징하는 사물이라고 볼 만한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상징성이 있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인물들의 체험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⑤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 2 이 글에는 중산층 가정의 세대 간 갈등만이 드러나 있을 뿐, 이념에 의한 계급 간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삼대에 걸친 가족 간의 삶과 갈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 풍속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수원덕’과 ‘경애’를 통해 축첩 제도라는 전근대적인 사회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영감은 구한말 세대, 상훈은 개화기 세대, 덕기는 식민지 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 3 영감은 수원집으로부터 상훈과 경애 이야기를 듣고도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해 상훈을 채근한 일이 없었다.

오답 해설 ①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만 뒷갈망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물을 저편에 들썩우고 발을 빼시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어제 애아범이 흥경애인가를 일본 술집에서 만났대요.’에서 알 수 있다.

4 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상훈은 경애와 관련하여 자신의 처신을 비난하는 덕기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② 영감은 남의 딸자식을 유인한 상훈의 처부를 들추어내고 있다. ④ 덕기는 경애와 그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훈을 비난하고 있다. ⑤ 상훈은 족보를 사기 위해 큰돈을 쓰고 치산을 하는 영감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5 경애와 한 고향인 수원집이 경애 모녀에 관한 소문을 조 씨 집안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재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 아니며, 자본주의적 가치관과도 거리가 멀다.

6 ④는 상훈의 가치관, ⑤는 영감의 가치관과 관련된 것으로, 각각 개화기 시대와 구시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과 ⑥는 모두 영감과 상훈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③ ③가 명예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⑥는 영감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지, 금전욕과는 거리가 멀다. ④ ④와 ⑤는 각각 상훈과 영감이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 씨 가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⑤ 덕기가 ④와 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2 장옥당육가

본문 417~42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이 시는 자연 친화적인 ‘백구’, ‘붉은 잎’, ‘산’, ‘가랑비’, ‘낙시터’ 등의 자연물을 통해 자연과 합일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09 <제4수>의 ‘맑으면 갯을 씻고 흐르면 발을 씻네’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옹고 그림을 구분하며 분별 있게 살아야 한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현실 세계를 세속적 가치가 난무하는 혼탁한 세상으로, 화자와 합일된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④ 4 ① 5 ② 6 득 찾는 무리 7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나’는 옹고 그림을 판단하여 분별 있게 살지만 속세의 사람들은 옹고 그림을 구별하지 못한다.

1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소부 허유 등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하여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과 속세의 삶을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공명을 ‘해진 신’에 비유한 것에서 속세를 회의적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백구’는 화자와 구별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목적 삶을 사는 화자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탁’은 맑고 탁함을 말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일컬으며 세상에 나아가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알아야 함을 뜻하고 있다. ③ ‘바가지’

는 세속적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속세에 미련이 없는 화자는 세상 사람들(네)이 물욕을 탐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고 있다. ④ 화자는 이미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 백구와 자신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존재로 ‘해몽’을 들고 있다. 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인 ‘붉은 잎’과 ‘빈 강’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낙시터의 한적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3 이 글에서는 나를 잊은 ‘백구’를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된 경지를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서는 ‘무덤 위’에 푸를 ‘이끼’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모습의 고향이 아닌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작품 모두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고향의 과거 모습과 피폐해진 현재 모습을 대비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감을 표현한 것이지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두 작품 모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지 않았다. <보기>는 실행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심화되며 시상이 전개되는 점층적 전개이다.

4 ①은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는 시구이다.

오답 해설 ③ ‘득 찾는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로 당시 상황에서 당쟁을 일삼는 무리를 말한다. ④ 절의를 지킨 소부 허유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다. ⑤ 굴원의 ‘어부사’를 인용한 부분으로 분별 있게 살아야겠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5 ‘빈 강’에서 낙시를 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가 ‘득 찾는 무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명을 추구하는 세속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백구’와 ‘나’가 서로 잊어 모른다는 것에서 물아일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공명은 해진 신이니’에는 화자가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⑤ ‘청탁’은 맑고 흐림, 즉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이르는 말인데 ‘세상 사람’을 ‘청탁’을 모르는, 즉 옹고 그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3 영언십이장

본문 423~428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화자는 세속의 부귀공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05 화자인 ‘나’가 드러나지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06 화자는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는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이다.

09 주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10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제1수>와 <제6수>에서 백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 <제2수>, <제11수>에서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을 묘사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주로 반구정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명령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2수>의 ‘호월’ 등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가진 시어가 나타날 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2 ㉠ ‘아니 놀고 어찌하리’는 현실의 욕망이 좌절된 데서 오는 체념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백구는 ‘자거자래(제멋대로 왔다 제멋대로 감.)하는 존재이며, 이와 벗고 싶다는 것은 화자도 이와 같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시의 주된 배경이 되는 반구정으로 가는 길이 드러나 있다. ④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맑음과 탁함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청산과 유수처럼 살고자 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3 <제7수>에서 ‘나는 몰라 하노라’를 통해 화자가 속세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귀공명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의 ‘반구정’, <제6수>의 ‘연하’, ‘구로’는 속세를 떠나 자유롭게 사는 자연에서의 삶을 드러낸다. ② <제2수>의 ‘풍광이 이려하니’는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반구정에 눕는 화자의 행동은 반구정의 주변 풍경을 오롯이 즐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시적 공간인 반구정의 주변 풍경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⑤ <제11수>에서 ‘산수같이 하오리라’는 산수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4 <제11수>의 ‘청산, 유수, 산수’는 화자의 이상향이자 화자가 누리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므로, 다가갈 수 없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제1수>는 시의 공간적 배경인 ‘반구정’이 제시되고, 화자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백구’가 나타나고 있다. ② <제2수>는 흰색의 이미지를 가진 ‘호월’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제6수>는 ‘연하, 구로’와 ‘부귀공명’이 대비되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세속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강호의 삶을 즐기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제7수>는 ‘태을 연엽’을 띄우고 ‘탁영가’를 부르는 은일자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

- 5 한자어의 사용이 많고, 「도산십이곡」과 표현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구를 답습하고 있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소재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형식과 내용, 표현이 비슷하다고 해도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③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제 의식이 비슷하지만, 「도산십이곡」은 학문에 정진이라는 주제도 있으므로 주제 의식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없고, 표현이 비슷하므로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당시 보편적인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지키고,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지만, 표현의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독보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Memo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